

# 음악오늘 10년의 기록

창작과 실천의 여정

음악오늘 10주년 기념 백서  
(2015 - 2025)





since 2015

# 목 차

- 01 | 인사말 | 김두영 4  
음악오늘, 10년의 기록을 묶으며
- 02 | 축하 | 장웅조 8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로운
- 03 | 생각 하나 | 신수정 14  
젊은 작곡가 발굴
- 04 | 생각 둘 | 양지선 18  
음악오늘의 성공비결
- 05 | 생각 셋 | 도하나 22  
'음악오늘'의 또 하나의 두드림, 타악기
- 06 | 생각 넷 | 이한주 26  
'음악오늘'과 나의 즉흥 음악의 만남
- 07 | 생각 다섯 | 유호정 29  
'음악오늘' 열다섯 번째 이야기: 2nd Live <즉흥> 리포트
- 08 | 생각 여섯 | 김두영 36  
음악오늘 - 제1회 서울예술상 음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다

09	생각 일곱   김정수 <울·동·선> - 선(線)에 관하여	40
10	축하 메시지 '음악오늘' 10주년 축하 메시지	44
11	생각 여덟   김은진 수업 시리즈: 음악과 삶을 잇는 배움의 여정	48
12	수업기록	50
13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신수정, 김두영, 김은진, 양지선, 김지영, 양영광, 도하나	55
14	지난 시간들	56
15	연혁	68
16	이야기 히스토리	70

## 음악오늘, 10년의 기록을 묶으며.

작곡가,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김 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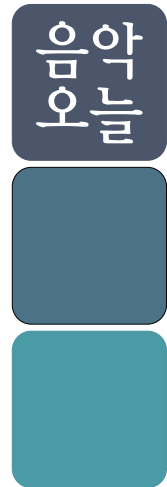
‘음악오늘’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음악오늘’을 문어체로 소개한다면 “창작 음악을 기반으로 음악가와 청중이 공존하는 예술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음악예술 단체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음악오늘’ 이름 아래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음악 기획사라고 소개하기도 어렵고, 작곡 동인도, 학회도 아니며, 협회나 학교의 산하기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모호함에도 첫 연주회 프로그램 노트에는 ‘음악오늘’에 대한 소개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이야기’의 초대의 글 전문입니다.

『‘음악오늘’을 또렷이 문장으로 풀어내긴 어렵습니다. 축적하고 추상할 만한 내용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오늘은 연주홀을 대관했습니다. 연주자를 섭외했습니다. 창작곡을 위촉했습니다. 연주곡을 선곡했습니다.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음악을 즐기고, 연주하고, 창작하는 모든 동사에 오늘이 땅에 함께 사는 당신의 이름이 주어로 서술되는 또 하나의 문장이 ‘음악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푹푹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러, 이제 스무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준비를 하는 ‘음악오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 또 하나의 문장을 ‘음악오늘’은 잘 써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음악오늘’을 소개할 수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노래하고, 창작하고, 감상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이 시간이 되어 10년이 되었습니다. 반복은 습관이 되고, 신뢰의 이름이 되어 창작 음악계의 다양성에 보태어진 또 하나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10년의 시간과 지금껏 들려드린 스무 번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묶어, ‘음악오늘’을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악오늘’은 창작 음악의 호흡을 이어가며, 음악가와 청중이 만나는 또 하나의 문장을 성실히 써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 번째 이야기 | 최용기의 <클라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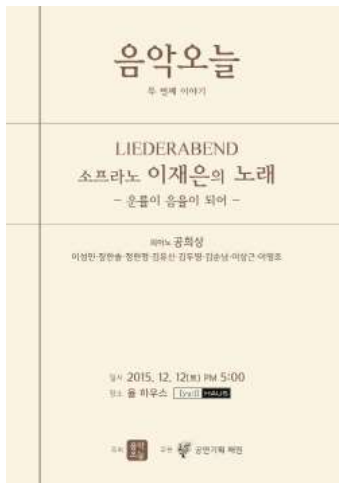
2015. 09. 24. 유중아트홀

연주자 | 최용기 (클라리넷), 안희정 (피아노)

작곡가 | 윤이상, 김용환, 류상순, 김두영, 신수정  
Jörg Widmann, Joseph Horowitz

2015년 9월 24일, ‘음악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최용기의 <클라리넷>이 유중아트홀에서 열렸다. 연주홀을 대관하고, 연주자를 섭외하고, 창작곡을 위촉하고, 작품을 선곡하고, 후원을 모아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기까지, 이 모든 준비의 끝에는 음악을 즐기고, 연주하고, 창작하는 ‘오늘’이 있었다.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창작하는 모든 동사에 ‘우리’라는 주어가 놓이며, 그 문장이 피어난 이름이 바로 ‘음악오늘’이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날 무대에서 비로소 소리로 완성되었다.

클라리네티스트 최용기와 피아니스트 안희정이 함께한 이날 공연은 국내 작곡가의 신작과 해외 작품이 어우러져 현대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 무대에 담아냈다. 프로그램은 윤이상의 오보에 또는 클라리넷을 위한 ‘피리’(1971)를 시작으로, 김용환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Improvisation’(2015, 세계초연, 음악오늘의 위촉곡)과 류상순의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처세술’(2015, 세계초연, 음악오늘의 위촉곡)이 연주되었다. 이후 최용기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독주곡 ‘fantasie’(2015, 세계초연), 김두영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노래’(2007, 한국초연), 신수정의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매우 짧은 앵콜곡’(2015, 세계초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마지막 Jörg Widmann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5 Bruchstücke》(1997)로 ‘음악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했다.



두 번째 이야기 |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 운율이 음율이 되어 -  
2015. 12. 12. 올 하우스

연주자 | 이재은 (소프라노), 공희상 (피아노)  
작곡가 | 이성민, 김두영, 장한솔, 김순남, 정현성  
이상근, 김유신, 이영조

‘음악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소프라노 이재은과 피아니스트 공희상을 초청하여, 지난 100여 년 동안 창작되어 온 다양한 세대의 한국 가곡의 숨결을 한 무대에 담았다. 이재은의 따뜻한 음성과 공희상의 섬세한 손길이 만나, 시는 음악이 되고, 운율은 음률로 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듣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날 공연은 한 세기를 걸쳐 이어져 온 한국 예술가곡의 역사와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젊은 작곡가들의 창작 가곡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은 이성민의 ‘별’(안상학 시, 세계초연)로 막을 열었으며, 이어 장한솔의 ‘눈은 나리네’(박용철 시), 정현성의 연가곡 《첫, 사랑》(세계초연) 중 ‘봄안부’(강인호 시)와 ‘기다림의 나무’(이정하 시)가 노래되었다. 또한, 정호승 시집에 의한 김유신의 《두 개의 가곡》(세계초연)의 ‘기차’와 ‘나그네새’가 처음으로 선보였고, 이어 김두영의 ‘가는 길’(김소월 시, 세계초연), 이성민의 ‘꽃잎이 흔들리는 날은’(채수영 시), 김순남의 ‘진달래꽃’, ‘산유화’(김소월 시)가 연주되었다. 이후, 이상근의 《아가》(유치환 시) 중 ‘아가’, ‘청령가’, ‘귀똥이’, ‘구름’과 이영조의 《황진이 시조에 의한 여섯 개의 노래》 중 ‘내 언제 믿음이 없어’, ‘어저 내 일이어’, ‘청산리 벽계수야’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로운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장 장 응 조

10년 전,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하고 안전한 길 대신, 참신한 주제와 실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작 무대라는 낯선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음악오늘’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현대음악의 지형을 새롭게 그려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단체의 연대기가 아니라, 한국 현대음악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 내려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짧다면 짧은 10년이지만, 이들이 남긴 성취와 시도는 한국 작곡계 안에서도 여전히 드물고, 그래서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단순히 한 작곡 동인의 창립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예술계가 품어온 가장 신선한 숨결과 가장 과감한 도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음악오늘’은 평균적으로 매년 두 차례 이상, 지금까지 20회가 넘는 순수 창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의 주제와 형식은 매번 새로웠습니다. <즉흥>, <소협주곡>, <줄>, <Pipe>, <울.동.선>, 그리고 <북.채.통!>에 이르기까지, 한국 작곡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제와 구성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무대는 단순히 완성된 악보를 연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창작의 과정이자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악오늘’의 협업 방식입니다. 무용, 미술,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되, 음악이 먼저 완성된 뒤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연의 주제와 방향을 정하는 첫 단계부터 협업 예술가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각자가 어떻게 자신의 예술 언어로 주제를 풀어낼 것인지 토론하고, 서로의 방식을 공유하며 설득합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음악오늘’ 무대의 독창성과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이었고, 협업이 깊을수록 조율의 난

이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음악오늘’ 작곡가들은 지난 10년간 이 방식을 고집스럽게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공연 하나하나가 단순한 장르 결합을 넘어,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예술 형식’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들의 무대를 보며 느낀 것은, 이들이 무대에 올리는 음악이 단순히 아름답거나 완성도가 높은 수준을 넘어, 철저히 ‘이 시대에 필요한 음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깊이 있는 공부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 덕분에 2022년, ‘음악오늘’의 공연 <울.동.선>이 제1회 서울예술상 음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음악오늘’이 지난 10년간 지켜온 진정성과 실험정신, 그리고 협업의 철학이 공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오늘’은 또한 공연과 더불어 수업 시리즈를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이 수업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공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악계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공개 강연 형식으로, 연주자·작곡가·학자뿐 아니라 다른 장르 예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주제 또한 폭넓습니다. <음악, 어떻게 들을 것인가>와 같은 음악 감상의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한스 아이슬러의 대중적 시선>, <작품으로 보는 리게티 창작관>, 그리고 <한국의 장단과 타악기 연주법>까지, 음악과 예술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앙트러프러너십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진행했던 강연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는 ‘음악오늘’이 음악의 창작에서 유통, 그리고 관객의 향유까지 이어지는 음악의 가치사슬 전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순수 창작 단체가 예술경영과 기업가정신 같은 주제에까지 관심을 두고 논의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창립 10주년은 하나의 이정표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음악오늘’은 이제 ‘10년이 된 단체’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로운 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주제와 신선한 아이디어, 깊이 있는 연구와 협업으로 우리 예술계에 놀라움과 감동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한국 현대음악의 미래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꿈꿉니다. ‘음악오늘’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예술계의 축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변함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 세 번째 이야기 | 박성호, 김지현의 <크리스마스 듀오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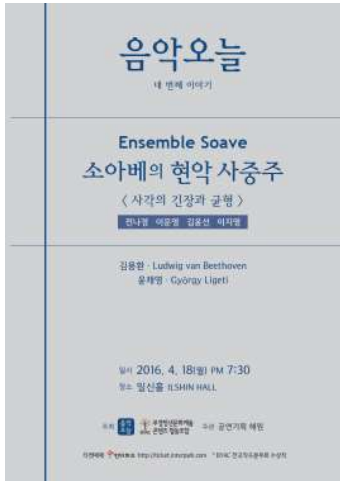
2015. 12. 19. 산 다미아노

연주자 | 박성호 (기타), 김지현 (피아노)

작곡가 | Anton Diabelli, Alberto Ginastera,  
Luigi Boccherini, David Kellner,  
Agustin Barrios Mangoré

2015년의 끝자락, ‘음악오늘’은 산 다미아노(San Damiano)의 포근한 공간에서 기타리스트 박성호와 피아니스트 김지현을 초청하여 <크리스마스 듀오 콘서트>를 열었다. 두 연주자가 들려준 음악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겼고,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음악이 전하는 따뜻한 평화와 나눔의 마음을 선물한 콘서트였다.

이날 공연은 기타와 피아노의 이색적인 조합을 통해 서정과 열정,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의 정서가 조화롭게 드러난 무대였다. 프로그램은 Anton Diabelli의 《Grande Sonate Brillante》, Op. 102로 막을 열었고, 이어 Alberto Ginastera의 《Danzas Argentinas》, Op. 2 No. 1~3이 연주되었다. 이후, Luigi Boccherini의 ‘Introduction and Fandango’, David Kellner의 ‘Fantasia d-moll’ 과 ‘Fantasia D-dur’가 차례로 이어졌으며, Agustin Barrios Mangoré의 ‘Julia Florida’와 마지막 곡 ‘The Christmas Song’으로 크리스마스의 따스한 여운을 남겼다.



## 네 번째 이야기 | 소아베의 <현악 사중주> -사각의 긴장과 균형-

2016. 04. 18. 일신홀

연주자 | 전나경 (바이올린), 이문영 (바이올린),  
김윤선 (비올라), 이지영 (첼로)

작곡가 | 김용환, L. v. Beethoven  
윤채영, György Ligeti

‘음악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완숙한 연주와 폭넓은 레퍼토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 ‘소아베’(Soave)를 초청하여, 현악 사중주의 정교한 구조 속에서 긴장과 아름다움을 만끽한 무대였다. BYAC 부경청년문화예술 콘텐츠협동조합과 공동주최로 열린 이 공연은 국내 젊은 작곡가들의 신작 세계초연과 고전·현대 거장들의 작품을 한 무대에서 나란히 선보였다.

부제인 ‘사각의 긴장과 균형’은 같은 음색으로 이루어진 네 악기를 네 개의 점으로 상상하고,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해 만들어진 사각의 공간 안에서 각 악기가 고유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긴밀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무대는 그 보이지 않는 사각의 공간 안에서 네 악기가 균형을 이루기도, 때로는 일그러지기도 하며 시시각각 다른 형태로 변주되는 긴장과 조화의 순간들을 펼쳐 보였다.

공연은 김용환의 현악4중주를 위한 ‘Tales of Swings’(2016, 세계초연, BYAC 전국 작곡콩쿠르 수상작)로 막을 열었고, 이어 L. v. Beethoven의 후기작 《Grande Fuge》 Op. 133이 연주되었다. 후반부에서는 윤채영의 현악4중주 제1번 《Fantasy》(2016, 세계초연, BYAC 전국작곡콩쿠르 수상작)가 연주된 뒤, 마지막으로 György Ligeti의 String Quartet 제1번 《Metamorphoses nocturnes》가 이날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 다섯 번째 이야기 | 기타리스트 황민웅의 <울림> 2016. 06. 29. 산 다미아노

연주자 | 황민웅 (기타), 이정미 (해금)

작곡가 | S. Yradier, F. Tárrega, J. M. Gallardo del Rey, J. L. Merlin, 김정혁

‘음악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기타리스트 황민웅을 초청하여 여섯 현이 만들어내는 깊고 따뜻한 <울림>의 세계를 나누는 무대였다. 특히 이날은 공연되기 약 8년 전 조성민 동양화 작가가 수천 장의 그림으로 제작한 영상 작품과 작곡가 김정혁의 영상음악 ‘눈빛’이 함께 상영·연주되어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지는 예술적 교감의 순간을 이루었다.

프로그램은 S. Yradier의 ‘비둘기’(La Paloma)로 막을 열었고, 이어 F. Tárrega의 ‘탱고’(Tango), ‘그네’(El Columpio),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Recuerdos de la Alhambra)이 연이어 연주되었다. 이후 J. M. Gallardo del Rey의 ‘노래와 춤’(Canción y Danza), J. L. Merlin의 《세 개의 사랑의 노래》(3 Canciones de Amor)인 ‘사랑에 빠진 나비’, ‘아버지의 노래’, ‘부러진 피리’가 연주되었다. 이어 김정혁 작곡, 조성민 영상·그림의 영상음악 ‘눈빛’(기타와 해금 편성)이 상영·연주되었고, 다시 J. L. Merlin의 추억의 모음곡 중 ‘Carnavalito’, ‘Evocación’, ‘Joropo’가 무대에 올랐다. 공연의 마지막은 F. Tárrega의 ‘그란호따’(Gran Jota)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여섯 번째 이야기 | 레나테 그라이스-아르민의 <플루트>  
-홀로, 그리고 함께-  
2016. 10. 04. 일신힐

연주자 | Renate Greiss-Armin (플루트)  
고영주 (플루트), 윤혜리 (플루트)  
작곡가 | Joseph Bodin de Boismortier,  
Claude Debussy, 신수정,  
François Doppler, C. P. E. Bach,  
윤이상, Caspar Kummer

‘음악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플루트 교수 레나테 그라이스-아르민(Renate Greiss-Armin)을 초청하여 열린 특별한 무대였다. 그녀는 이번 내한 연주를 통해 자신의 스승이자 플루트계의 전설로 존경받는 오렐 니콜레(Aurèle Nicolet, 1926-2016)를 기리며, 그의 음악적 유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헌정의 마음으로 전했다.

공연의 부제인 ‘홀로, 그리고 함께’는 플루트 독주와 앙상블의 조화를 잇는 의미로, 이날 그라이스-아르민은 독주자로서의 섬세한 내면세계와 함께, 연주자들과의 호흡 속에서 음악이 확장되는 순간들을 보여주었다. 무대에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플루트 부수석 고영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윤혜리, 그리고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연주 활동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임수연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Joseph Bodin de Boismortier의 《Sonate g-moll》 für drei Querflöten und Basso Continuo로 막을 열었다. 이어 Claude Debussy의 《Bilitis》 pour Flöte et Piano가 연주되었으며, 신수정의 《Vier kleine Stücke》 für Flötentrio(2016, 세계 초연)가 무대에 올랐다. 후반부에서는 François Doppler의 ‘Andante et Rondo’ Op. 25(for 2 Flutes and Piano), C. P. E. Bach의 《Solo sonate a-Moll》 für Flöte allein, 윤이상의 ‘Garak’ for Flute and Piano가 차례로 연주되었고, 마지막으로 Caspar Kummer의 《Trio Brillant》 für drei Flöten D-Dur, Op. 30이 그라이스-아르민, 고영주, 윤혜리의 플루트 트리오로 이날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 젊은 작곡가 발굴

작곡가,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신수정

음악 앞에 평등한 우리

‘음악오늘’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기반도 제도적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를 채운 것은 언제나 사람과 음악이었습니다. 훌륭한 작곡가와 작품, 이를 소리로 구현해 낸 연주자들, 그리고 음악에 귀 기울여 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외부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젊은 작곡가 발굴”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나 계획을 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함께 연주하고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음악오늘의 출발점이자 지금까지 지켜 온 원칙입니다.

음악계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이나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작곡가란 자신의 음악에 책임을 지고 창작하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만들어 낸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를 동등한 예술가로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성숙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스스로를 ‘학생’으로만 인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먼저 사회적 거리감을 거두고, 온전히 ‘작곡가’로 대해 주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량 높은 연주자들과의 협업은 제게 큰 배움이 되었고, 제 작품에 책임을 지는 작곡가로서의 자의식을 키워 주었습니다.

음악은 계급을 만들지 않으며, 음악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음악오늘’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믿음을 실천해 온 자리였고, 앞으로도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 일곱 번째 이야기 | 이영우의 <피아노> -오늘 · 여가 함께-

2016. 10. 06. 일신홀

연주자 | 이영우 (피아노)

작곡가 | 김정훈, 이도훈, 김택수,  
최지연, 유도원, 이성현

‘음악오늘’의 일곱 번째 이야기는 현대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프로그램 구성력과 연주 기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영우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정훈, 김택수, 유도원, 이도훈, 최지연, 그리고 젊은 작곡가 이성현 등 한국의 동시대 작곡가들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작곡한 피아노 작품들로 레퍼토리가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최지연과 유도원의 작품은 ‘음악오늘’의 위촉으로 세계초연 되었으며, 김택수의 작품은 한국초연으로 소개되었다.

프로그램은 이도훈의 ‘별이 빛나는 밤에’ (Sternennacht, 2015–2016)로 시작되었다. 이어 김택수의 ‘바흐 주제에 의한 300개 이상의 작은 변주들’ (300+ Microvariations on a Bach Theme, 2015, 한국초연)이 연주되었고, 유도원의 ‘직선과 사선 무늬들’ (The Patterns of Straight and Oblique Line, 2016,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이 뒤를 이었다. 이후 김정훈의 ‘먼 가장자리’ (ferner rAND, 2014)와 이성현의 ‘색깔놀이’ (Colour Play, 2016)가 연주되었으며, 최지연의 《3번 모음곡》(Troisième Suite, 2016,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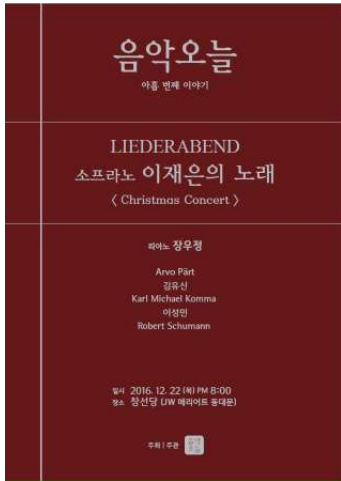
**여덟 번째 이야기 | Bitter Sweet #5 <인물>**  
2016. 10. 26. 산 다미아노

**출연자 | 윤사비나 (진행), 최연우, 장승란 (영상)  
박윤경 (25현 가야금)**

**작곡가 | 배현정, 권재훈, 김성은, 강은영, 김부현**

‘음악오늘’의 여덟 번째 이야기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탐구를 주제로 관객과 만났다. 이날 무대는 Bitter Sweet #5의 다섯 명의 아티스트가 각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인물을 음악으로 불러내어, 무용, 피아노, 영상, 국악, 명상 등 다양한 매체를 결합한 다중예술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아기, 노인, 사랑하는 여성, 한 시대를 살아간 여인, 나무와 소년, 그리고 소리로만 기억되는 누군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다섯 작곡가의 작품 속에 섬세하게 담겨졌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윤사비나가 진행과 함께 하나의 인물로 무대에 등장해 작품과 작품 사이를 잇고 설명하며 관객이 각 곡의 인물에 조금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첫 무대인 배현정의 《심바토피아》(simbatopia)는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심바를 모티브로 삼아, 1악장 ‘심바의 탄생’과 2악장 ‘심바토피아’를 통해 주인공의 탄생과 성장의 서사를 그렸다. 두 번째 작품 권재훈의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의 동명 소설 속 노인을 음악적으로 재현하였으며, 세 번째 김성은의 ‘미도리’는 헤밍웨이의 동명 소설 속 노인을 음악적으로 재현하였으며, 세 번째 김성은의 《미도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속 인물 미도리를 중심으로, Chapter 1 ‘상실의 시대’, Chapter 2 ‘딸기 쇼트 케이크’, Chapter 3 ‘녹색 숲’의 순서로 소설의 장면들을 음악적으로 변주하며 전개하였다. 네 번째로 연주된 강은영의 25현 가야금을 위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은 박경리의 단편소설 『불신시대』 속 주인공 ‘진영’을 음악으로 형상화했으며, 마지막으로 김부현의 두 작품, ‘다시 생각해 봐’(인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속 나무와 소년)와 ‘유폐된 시간’(인물: 소리로 기억하는 누군가)의 연주로 공연은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아홉 번째 이야기 |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Christmas Concert-  
 2016. 12. 22. 창선당

연주자 | 이재은 (소프라노), 장우정 (피아노)  
 작곡가 | Arvo Pärt, 김유신, Karl Michael Komma,  
 이성민, Robert Schumann

‘음악오늘’의 아홉 번째 이야기는 2016년의 끝자락, 소프라노 이재은과 피아니스트 장우정을 초청하여 열린 연말의 크리스마스 음악회였다. ‘Christmas Concert’라는 부제 아래 마련된 이날 무대는 혼돈의 시기를 지나온 한 해의 끝에서, 음악이 전하는 따스한 감동와 정돈(整頓)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프로그램은 Arvo Pärt의 ‘My Heart’s in the Highlands’(2000)으로 문을 열었으며, 김유신의 ‘Le grande bellezza’(2016, 세계초연,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이 뒤를 이었다. 이후 Karl Michael Komma의 《Fünf Gesänge nach Fragmenten von Friedrich Hölderlin》(1975)과 Arvo Pärt의 ‘Weihnachtliches Wiegenlied’(2002)이 차례로 연주되었다. 이후 이성민의 《Auf eine Christblume I, II》(2016,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 Robert Schumann의 《Sechs Gedichte von N. Lenau und Requiem》 Op. 90(1850)으로 공연이 마무리되면서 청중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 음악오늘의 성공비결

작곡가,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양 지 선

‘무슨 돈으로 음악회를 여세요?’ 아마도 음악오늘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일 것 같다. 음악회를 기획할 때 처음부터 공연을 마칠 때까지 언제나 따르는 재정문제, 오늘 그 이야기를 털어놓아보려고 한다. ‘음악오늘’은 물욕이 없다. 물욕이 없는 것과 돈이 없어서 음악회를 못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시도했다. ‘음악오늘’ 매회의 음악회는 순수하게 음악을 잘 연주하고자 하는 연주자와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어하는 작곡가들이 만나 음악회를 만들어간다. 정말로 같이 힘을 모아 만들어간다. 항상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음악회는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청중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이름이 되었다. 오선지만 잘 그려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닌 작곡가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단체통장의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노심초사하며 아끼고, 또 아껴서 지금까지 단체를 이끌어왔다.

처음 내가 ‘음악오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라의 지원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공동대표 신수정, 김두영 선생님 두 분은 머리를 맞대어 개인 후원이나 회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몇몇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크고 작은 후원금을 받아 얇은 봉투이더라도 작곡가의 위촉료와 연주자의 연주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실 수 있었다고 한다. 후원자를 찾기 위한 홍보 브로셔를 만들고, 직접 병원, 법인 사무실 등을 방문해 도움을 얻고자 노크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저예산 음악회 중 성공적이었던 음악회의 연주자는 기억해놓았다가 다시 앵콜을 요청하여 제대로 된 연주비를 드리고 음악회에 초청하였다. 현재는 감사하게도 몇 분의 개인 음악가 혹은 지인분께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오신다.

가만보니 음악오늘은 연주의 퀄리티가 높았고, 연주 경력도 많아 재단이나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지원했고, 우리는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사업도 3년간 추진하게 되었다. 2021년 현대무용단체 ‘괘념치’와 작업한 ‘울.동.선’이라는 작품이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제 1회 서울예술상> 음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는 약 천만원의 상금을 받게되었다. 세금을 제하니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를 우리 단원들은 1/n로 바로 나누지 않고, 투자의 개념으로 일부는 우리가 일한 댓가로 받았으며, 일부는 아직 음악오늘 단체통장에 남아서 우리의 회의비와 기타 필요경비에 지출하는 목적으로 예금해 두었다. 그리고, 단원들은 작곡료로 받은 지원금의 소액을 후원금으로 다시 모아서 예금해 두고 있다. 언제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해에 우리가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다.

물론 지원금과 음악회의 후원금으로 다음 음악회를 준비하는 일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다. ‘음악오늘’이 진행하는 수업 <음악오늘. 오늘 이 사람> 시리즈에서는 단원의 지인이 간식을 제공해주셔서 풍족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회의는 매번 다른 장소에서 진행했는데, 오래 앉아서 이야기가 가능한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했었다. 리허설도 많은 경우 연주자의 연습실에서 진행하거나 시간당으로 빌릴 수 있는 연습실에서 진행하였다. 대관료가 저렴한 작은 공연장도 사실 음악회를 하기에 충분했다. 2017년도부터 김지영 선생님의 개인 사무실에서 ‘음악오늘’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 그 덕택으로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기획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우리는 더 이상 음악회를 만들기를 포기했거나 마이너스 통장인 상황에서 힘들어했을 것 같다. 나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음악회 하나하나를 충실히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음악오늘’ 통장은 배가 고프지 않다. 우리는 언제라도 원할 때 일년에 한 두 번의 음악회를 열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이런 마음이 음악오늘이 성공했다고 느꼈던 지점이었고, 또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계기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음악회를 열 수 있는 후원과 지원금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음악오늘 단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더 많은 후원으로 창작음악을, 오늘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 열 번째 이야기 | 최용기의 <클라리넷> Stradeum Live

2017. 03. 18. 스트라디움 스튜디오

연주자 | 최용기 (클라리넷), 안희정 (피아노)

작곡가 | Carl Maria von Weber, Joerg Widmann,  
최용기, 이성현, Joseph Horovitz

‘음악오늘’의 열 번째 이야기는 2015년 첫 이야기를 열었던 클라리네티스트 최용기를 다시 초청한 뜻깊은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안희정 역시 함께하며 더욱 특별한 호흡을 완성했다. 이날 공연은 ‘스트라디움’이 주최하고 ‘음악오늘’이 주관한 ‘Stradeum Live’ 시리즈의 일환으로, 현대 클라리넷 음악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연주와 창작, 그리고 청중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깊은 음악적 교감의 경험을 선사했다.

프로그램은 Carl Maria von Weber의 《Grand Duo Concertant》 Op. 48(1815-16)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Jörg Widmann의 ‘Fantasie’ for Clarinet Solo(1993)가 연주되었고,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작곡가인 최용기의 클라리넷 콰르텟을 위한 ‘다윗의 춤’ (2017, 세계 초연)이 첫선을 보였다. 이후 이성현의 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여섯 개의 오마쥬》, 6번. 윤이상의 오마쥬’ (2017, 세계초연,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가 연주되었으며, 마지막 Joseph Horovitz의 《Sonatina》 for Clarinet and Piano(1981)로 공연을 완성하였다.



## 열한 번째 이야기 | 이한주, 사토유키에, 계수정의 <즉흥>

2017. 11. 12. 이음아트센터

연주자 | 이한주 (실험음악), 사토 유키에 (기타),  
계수정 (피아노)

Guest | 이수아 (바이올린), 정인교 (대금),  
최노아 (Live Writer)

작곡가 | 양지선, 신수정, 박순영,  
계수정, 김지영, 김두영

‘음악오늘’의 열한 번째 이야기 <즉흥>은 즉흥 음악에 정통한 세 연주자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을 초청하여, 작곡가의 착상에서 출발한 음악적 아이디어들이 연주자들의 즉각적인 교감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자 기획된 무대였다. 아울러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즉흥 음악을 청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주자와 청중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세 명의 즉흥연주자 외에도 이수아(바이올린), 정인교(대금), 최노아(Live Writer)가 함께 참여하여, 즉흥연주의 다양성을 한층 넓히며 관객들에게 즉흥이 지닌 생동감과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했다.

프로그램은 신수정의 바이올린과 즉흥 연주자를 위한 ‘소리로의 번역’(2017, 세계초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양지선의 일렉기타, 피아노, 이-보우를 위한 ‘산(山)’(2017, 세계초연)이 연주되었고, 작곡가이자 즉흥 연주자인 계수정의 독주곡 ‘첩첩(疊疊)’(2017, 세계초연)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김지영의 ‘곡 쓴다는 것의 부조리’(2017,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와 김두영의 대금, 즉흥악기, 소리녹음 위한 ‘산책길’(2017, 세계초연), 그리고 박순영의 ‘불확정성’(2017,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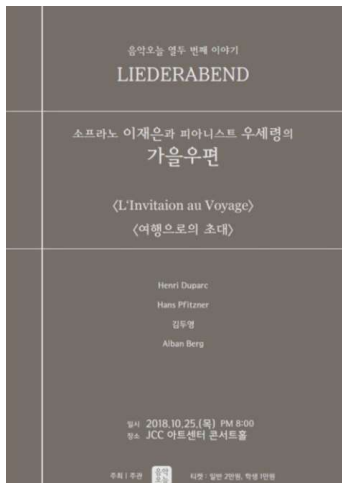
## ‘음악오늘’의 또 하나의 두드림. 타악기

작곡가,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도 하나

10년간 씬 없이 달려온 ‘음악오늘’은, 최근 창작, 연주, 연구가 만나는 새로운 시리즈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타악기이다. 인류의 원초적 음악에서 비롯되어 20세기 들어 더욱 본격적으로 음악창작의 주요 매개체로 자리 잡은 타악기를 떠올릴 때, 이제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들게 한다. 그만큼 필연적이고 치열했으며, 지금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만남이다.

‘음악오늘’의 열여덟 번째 이야기, 타악기의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퍼커션 듀오 ‘Young’과 함께한 <작은 타악>에서 그 여정은 시작된다. 언어 이전의 리듬, 소리의 기억은 몸에서 머리로, 감각에서 지각으로, 경험에서 은유로 이어지며 점차 하나의 창작 어법을 형성해 왔다. 이 무한한 타악기의 색채와 리듬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현대적 창작 어법으로 오늘의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음악 오늘’의 여정은 열아홉 번째 이야기, <북.채.통!>으로 이어진다. 여러 타악기를 의미하는 단어의 조합이자 팬데믹 이전의 북적이던 우리의 풍경-‘북새통’을 떠올리게 하는 <북.채.통!>은 단순한 타악기 탐구 넘어서,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을 향한 음악적 염원과 예술적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수업과 스무 번째 이야기로 채워질 ‘음악오늘’의 타악기 음악 창작, 연주, 연구의 만남은 세 번째 장을 맞이한다. 더 깊어진 이들의 탐험은 타악 그룹 ‘소리 퍼커션’과 함께하는 한국 전통 음악의 타악기, 유형, 방식, 장단, 어법, 문화, 미학과의 접목을 통해 그 세계를 한층 더 넓혀가고 있다. 이제 또 새롭게 펼쳐질 ‘음악오늘’이 빚어내는 타악기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두드림의 향연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자.



## 열두 번째 이야기 | 이재은, 우세령의 <가을우편> -여행으로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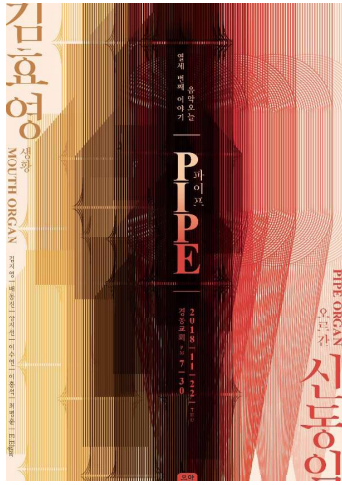
2018. 10. 25.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

연주자 | 이재은 (소프라노), 우세령 (피아노)

작곡가 | Henri Duparc, Hans Pfitzner,  
김두영, Alban Berg

‘음악오늘’의 열두 번째 이야기 <가을우편>은 소프라노 이재은과 피아니스트 우세령이 함께한 무대로 기획되었다. 부제인 ‘여행으로의 초대’ 처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음악과 시가 엮어낸 감정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한국의 예술가곡이 한 무대에 나란히 놓였다.

프로그램은 보들레르(C. Baudelaire)의 시에 의한 앙리 뒤파르크(Henri Duparc)의 ‘여행으로의 초대’(L’Invitation au Voyage, 1870), 라오르(J. Lahor)의 시에 의한 ‘황홀’(Extase, 1878)과 ‘슬픈 노래’(Chanson triste, 1868)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한스 피츠너(Hans Pfitzner)의 《다섯 개의 가곡》(Fünf Lieder für Singstimme und Klavier, Op. 7, 1888-1889)이 퀴닉스빈터(W. M. von Königswinter), 아이헨도르프(J. von Eichendorff), 헤세(H. esse)의 시로 작곡된 명작으로 한국 초연되었다. 이후 김소월의 시에 의한 김두영의 ‘사랑의 선물’(세계초연), ‘이불’(세계초연), ‘가는 길’이 차례로 연주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하우프트만(G. Hauptmann), 레나우(N. Lenau), 슈토름(T. Storm), 릴케(R. M. Rilke), 슬라프(K. Slavik), 하르트레벤(O. E. Hartleben), 호엔베르크(A. Hoenberg)의 시에 의한 알반 베르크(Alban Berg)의 《일곱 개의 초기가곡》(Sieben fröhe Lieder, 1905-1908)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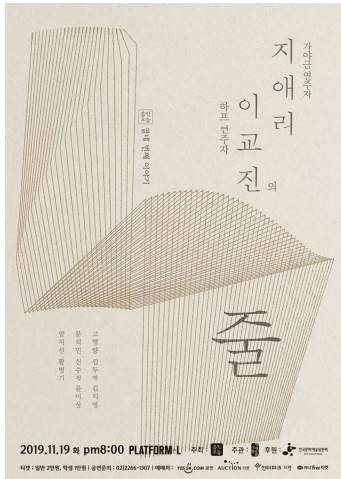


열세 번째 이야기 | 김효영, 신동일의 <Pipe>  
2018. 11. 22. 경동교회

연주자 | 김효영 (생황), 신동일 (오르간),  
Erwan Richard (비올라), 박노을 (첼로)  
작곡가 | Edward Elgar, 이수연, 김지영,  
이홍석, 배동진, 양지선, 최명훈

‘음악오늘’의 열세 번째 이야기는 생황연주자 김효영과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을 초청하여 <파이프(Pipe)>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일반적인 음악회장이 아닌, 1945년 광복 직후 설립된 경동교회의 성스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질적인 악기라 여기던 생황과 오르간은 바람과 관(Pipe)을 통해 음과 음정을 내는 인류의 근원적인 악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서로 다른 문명에서 태어난 두 악기는 ‘바람’과 ‘관(Pipe)’이라는 공통된 원리로 맺어진 소리의 만남을 통해, 두 연주자의 호흡이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는 새로운 음악적 조우를 이루었다.

공연은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의 오르간 작품 《Sonata No. 1 in G major》 중 1. Allegro Maestoso(1895)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수연의 생황 독주를 위한 ‘당김을 통하여’ (2018, 세계초연,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 김지영의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산으로 오르는 배’ (2018, 세계초연), 이홍석의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가을에 쓸쓸한 자...’ (2018,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 배동진의 생황, 비올라 그리고 첼로를 위한 ‘만남’ (2018,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이 차례로 연주되었다. 이후 양지선의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나선형 파이프’ (2018, 세계초연)와 최명훈의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로코코-시나위’ (2018,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로 마무리되며, 두 악기의 숨결이 교차하는 다채로운 작품들로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열네 번째 이야기 | 지애리, 이교진의 <줄> 2019. 11. 19. Platform-L

연주자 | 지애리 (가야금), 이교진 (하프)  
작곡가 | 황병기, 윤이상, 양지선, 신수정,  
김지영, 김두영, 고병량, 문석민

‘음악오늘’의 열네 번째 이야기는 가야금과 하프가 함께한 무대였다. 두 악기는 모두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이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두 악기가 만나 ‘줄’이 지닌 울림과 긴장, 그리고 이어짐의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였다.

‘음악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의 경계를 확장해 온 가야금 연주자 지애리와 하프 연주자 이교진을 한 자리에 초대하여 <줄>을 주제로 새로운 음악적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협연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뿌리를 둔 두 악기가 줄 위에서 공명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과 하프의 공통된 줄의 울림을 중심으로, 국내 작곡가들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현악의 세계를 그려낸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정남희제 황병기류의 ‘가야금 산조’로 시작하여, 양지선의 하프 독주를 위한 ‘쿨린 아넨’(2019, 세계초연), 김지영의 가야금과 하프를 위한 ‘점의 변주’(2019, 세계초연), 고병량의 하프와 가야금 소리를 활용한 ‘감성과 선택 사이의 얽힘’(2019,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 윤이상의 하프 솔로를 위한 ‘균형을 위하여’(1987), 신수정의 가야금과 하프를 위한 ‘작은 소곡’(2019, 세계초연), 김두영의 가야금 솔로를 위한 ‘다스름’(2019, 세계초연), 그리고 문석민의 가야금과 하프를 위한 ‘카탈로그’(2019, 세계초연,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 ‘음악오늘’과 나의 즉흥 음악의 만남

작곡가, 즉흥 연주자 이 한 주

“‘음악오늘’입니다”

이 말로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즉흥’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다양한 음악인을 섭외한다는 제의였습니다. 그동안 재미와 실험을 쫓으며 장난 반, 진지 반으로 음악과 사운드를 즐겨왔던 저로서는 살짝 부담스러운 제의였던 것이죠. ‘불가사리’라는 실험즉흥표현 발표회에 클래식 음악 전공자가 참여를 많이 했지만, 클래식 전공자가 만든 공연에 초대받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트러블 하나 없이 몇 회를 이어갔습니다. 나의 전공인 디자인으로도 참여하게 되어 신나기까지 했습니다. 나에게 음악, 아니 사운드는 표현 방법의 하나로 즐겨왔습니다. 여러 감각을 통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요.

2004년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가게를 차리고 음식을 통해 미각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다 싶은 시도도 했습니다. 음악-사운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겁도 없이…

‘음악오늘’과의 발표이벤트는 다른 공연 이벤트와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단단한 기획에 제약 없는 표현,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즉흥> 공연 이벤트를 했습니다. 함께 한 작곡가와 음악인의 작품과 표현을 접하는 기회가 되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오늘’이 만들어가는 공연 이벤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연결’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이벤트를 보거나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가 참여한 이벤트에서만큼은 ‘연결’, ‘소통’, ‘조합’을 실험하고 연결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모임 자리에서부터 리허설과 본공연 등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참여한 모든 음악인을 융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지금 이 자리’의 음악을 보여주는 행위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즉흥’은 그 순간 함께 있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분위기 채널이 맞아야 표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전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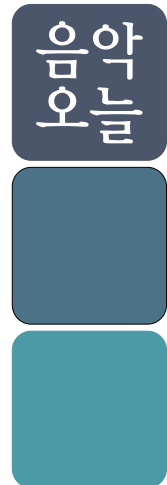
‘음악오늘’이 10주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벌써!

그들의 도전은 지나온 10년이 거름이 되어 수많은 가지가 열리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음악오늘’이 만들어가는 단단하며 유연함을 동시에 가진 기획과 발표 행위가 즉흥과 실험을 하는 것이기에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함께 이어간다는 기분을 받습니다.

‘음악오늘’ 10주년 아주 많이 축하드립니다.

저는 만약 그들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움이 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 열다섯 번째 이야기 | 2nd Live <죽흥> 2020. 09. 22. 예술공간 수애노 339

연주자 | 이한주 (실험음악), 사토 유키에 (기타)  
계수정 (피아노)

작곡가 | 양영광, 신지수, 계수정  
양지선, 홍윤경, 김지영

‘음악오늘’의 열다섯 번째 이야기, 2nd Live <죽흥>이 2020년 9월 22일, 예술공간 수애노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작곡가 김두영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함께했던 죽흥 실험 음악가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을 다시 초청하여, 여섯 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구성한 ‘죽흥’의 순간들을 펼쳐 보였다.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만큼 문화예술의 생태계도 위축되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음악은 끊임없이 존재했고, ‘음악오늘’은 네이버 TV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악기와 전자음, 그리고 실험적 사운드의 교차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관객과 소통했다.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도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음을 보여준 ‘음악오늘’의 의미 깊은 발자취였다.

프로그램은 양영광의 ‘야우(夜雨)’ for piano, e-guitar,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recorded sounds with live electronics로 시작되었다. 이어 신지수의 ‘전원 소나타’ for e-guitar, piano, toy pianos(1 player) and percussion, 계수정의 ‘a.S.a.p’ for Bells (feat. 캘리그래프), 양지선의 ‘recollection of the mutual moments I’ for e-guitar, piano by four hands and experimental instruments, 홍윤경의 ‘The goblin’s song’ for e-guitars, piano, toy piano, and experimental instruments, 마지막으로 김지영의 ‘The Absurdity of Writing Poetry II’ for e-guitar, piano,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typewriter가 연주되었다. 이날 올려진 모든 작품은 ‘음악오늘’의 열다섯 번째 이야기 <죽흥>을 위해 새롭게 작곡된 초연작들로 꾸며졌다.

## ‘음악오늘’ 열다섯 번째 이야기: 2nd Live <즉흥> 리포트

음악이론가 유 호 정

새로운 기획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음악오늘’이 2020년 9월 22일, <즉흥>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공연을 가졌다. 또한, 이번 공연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맞물려 관객들과 인터넷 Live 방송으로 함께한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다. 몇 년 전 <즉흥> 첫 번째 공연에서 <즉흥>이라는 주제에 대한 작곡가들의 시선을 보여줬었다면, 이번 두 번째 <즉흥> Live에서는 연주자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음악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영상, 그리고 전문 연주자가 아닌 공연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최소한의 규칙과 도구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좀 더 일반 관객들이 가깝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순서들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런 관객 지향적인 음악들은 즉흥연주자 이한주의 말처럼, 연주자와 연주자, 그리고 연주자와 청중이 서로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더욱 근접한 음악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이번 공연은 여섯 작품으로 구성되었고, 온라인 생중계라는 특성상 사회자의 간략한 곡의 소개 이후에 공연이 시작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공연은 라이브와 사전 녹음된 소리가 합쳐진 작품인 작곡가 양영광의 ‘야우(夜雨)’로 시작되었다. 제목처럼 밤에 내리는 비를 소리로 묘사하기 위해 실제로 녹음된 빗소리가 사용되었는데, 이 소리가 피아노와 일렉 기타, 그리고 전자음악 라이브와 함께하면서 음악의 텍스처를 견고하게 쌓아나가는 과정이 돋보이는 연주였다. 녹음된 빗소리를 변형시키고 재창조한 구체 음악(Concrete Music)이 아니라, 다양한 빗소리를 작품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 방식이 비 오는 밤의 풍경을 더욱 사실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연주는 베토벤의 전원 소나타의 제1주제를 모티브로 한 작곡가 신지수의 ‘전원 소나타’로, 이 곡의 독특함은 다양한 소재의 사물을 이용하여 기타의 현을 마찰시키는 연주에서 매우 두드러졌다. 현을 마찰시키는 사물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현악기의 활(Bow)뿐만이 아니라, 톱, 슬라이드, 스페너, 장난감 총 등 매우 다양한 소재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혹은 낯섬을 증폭시켰는데, 이것은 이 작품의 주제인 21세기의 환경오염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졌다. 이 외에도 피아노와 토이 피아노의 서로 다른 음색이 함께 하면서, 최소한으로 결정된 범위 안에서 각 악기의 소리가 재미있는 어울림을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세 번째 작품인 피아니스트 계수정의 ‘a.S.a.p’는 전문 연주자가 아닌 공연에 참여했던 작곡가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 핸드벨을 누르는 아주 단순한 방식의 연주였다. 제목 중간에 위치한 대문자 ‘S’는 Slow를 뜻하며, 이 곡의 주제를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연주자들은 모래시계로 연주의 시작과 끝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각자가 본인 앞에 놓인 벨을 자유롭게 누른다. 누르는 시간과 길이, 순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느림’이라는 단어를 연주자 나름의 해석으로 연주하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소리의 조합에서 철저한 우연성 음악(Aleatory Music)의 형태를 갖춘 음악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비전문 연주자들이 조합되어 연주하는 공연이니 만큼, 이러한 포맷으로 장소와 사람을 구애받지 않고 쉽게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작품인 작곡가 양지선의 ‘Recollection of the mutual moment II’는 영상의 흐름에 따른 일렉 기타와 피아노의 연주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Prepared Piano와 활로 기타의 현을 마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곡은 자연의 고요한 풍경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적이면서 전위적인 악기의 소리를 쏟아나가면서, 작곡가의 설명처럼 긴 화성의 진행 과정을 지루하지 않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작곡가 홍윤경의 ‘The goblin’s song’은 그림의 획에 따라 음악이 진행되는 방식을 차용한 작품이었다. 그림의 획은 도깨비의 얼굴을 그렸다가 다시 지우는 과정으로 움직이는데, 기타가 E음을 오스티나토로 연주하면서 피아노와 토이 피아노,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소리가 텍스처를 쌓아나간다. 이 곡은 도깨비의 얼굴이 완성되고 사라지면서 소리도 함께 완성되었다가 사라지는데, 시각적으로도 즐거우면서 영상과 소리의 하모니가 매우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마지막 연주인 작곡가 김지영의 ‘The Absurdity of Writing Poetry II’는 첫 번째 <즉흥> 공연에서 연주되었던 곡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공연에서도 기대하고 있던 연주였다. 공연은 미국 극작가인 Matt Slaybaugh의 모노드라마의 한 대목을 타이피스트가 대사로 읊으며 시작하는데, 대사의 흐름에 따라 음악이 고조된다. 두 번째 공연에서는 첫 공연에서의 타이핑 소리, 일렉 기타, 두 개의 활, Prepared Piano의 조합에, 타이피스트의 영어와 기타리스트의 일본어 독백이 어떠한 순서 없이 엮어지면서 음악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가 뒤섞이는 가운데 타이피스트는 예술에 대한 자아를 노래한다.

온라인 생중계로 관객과 함께했던 <즉흥> Live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공연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시였다고 생각한다. 단, 현장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청각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음악 공연의 경우, 전문적인 방송 장비와 공연장의 음향 설비를 갖추어야만 가장 양질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 외적인 면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즉흥 음악처럼 관객과의 현장에서의 호흡이 중요한 장르는 온라인에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즉흥의 본래 의미를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라이브를 통해 새로운 연주 포맷으로 관객에게 최상의 공연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던 ‘음악오늘’ 관계자들과 공연 진행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특별한 이야기 | 프로젝트 앙상블 ‘음악오늘’  
**Jörg Widmann** <새것, 오래된 것, 빌려온 것>  
 2021. 03. 15. 일신회

연주자 | 앙상블 소아베, 최용기 (클라리넷),  
 이재은 (소프라노)

작곡가 | Jörg Widmann

2021년 3월 15일 일신회에서 열린 특별한 이야기는 프로젝트 앙상블 ‘음악오늘’의 첫 공식 무대로, 그동안 ‘음악오늘’의 기획 연주회에서 활약해 온 앙상블 ‘소아베’(전나경, 이문영, 이경원, 김경란, 박보운), 클라리네티스트 최용기, 소프라노 이재은이 함께하여 완성한 공연이었다. 이날 무대는 일신 프리즘 콘서트 시리즈 연주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독일의 대표적 현대 작곡가이자 클라리네티스트인 요르크 비트만(Jörg Widmann)의 주요 실내악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의 주제인 <새것, 오래된 것, 빌려온 것>과 같이, Widmann의 작품이 지닌 새로움 속의 고전성, 그리고 과거로부터 빌려온 현대적 어법을 앙상블 ‘음악오늘’의 연주를 통해 여실히 드러냈다.

프로그램은 String Quartet No. 3 ‘Jagdquartett’(2003), ‘Fieberphantasie’ for Piano, String Quartet and Clarinet(1999), ‘Nachtstück’ for Clarinet, Violoncello and Piano(1998), 그리고 String Quartet No. 5 ‘Versuch über die Fuge’ mit Sopran(2005)으로 구성되었다.



## 열여섯 번째 이야기 | 앙상블 소아베의 <소협주곡>

2022. 2. 27.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연주자 | 앙상블 소아베

Guest | 최용기 (클라리넷), 김순희 (클라리넷),  
길희정 (첼로), 이재은 (소프라노)

작곡가 | 김연주, 양영광, 신수정

지성민, 이만방, Jörg Widmann

‘음악오늘’의 열여섯 번째 이야기는 오랜 시간 ‘음악오늘’과 함께해 온 앙상블 ‘소아베’(Soave)가 중심이 되어 바로크 시대에 정립된 콘체르티노(concertino) 형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무대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시대 작곡가들과 실내악 연주에 정통한 연주자들이 함께하며, 전통의 계보 위에서 빚어낸 현대 콘체르티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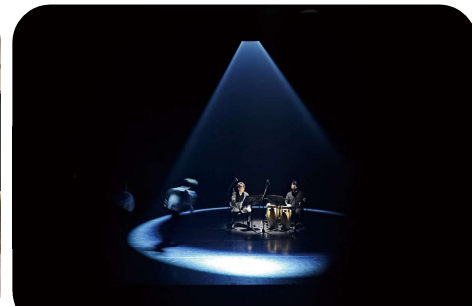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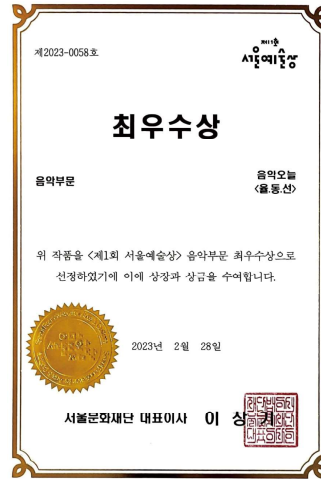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김연주의 ‘Eternal Recurrence’ for Soprano, Clarinet in Bb, Viola and Violoncello(2021, 세계초연,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로 시작해, 양영광의 ‘Vox clamantis in deserto concertino’ for piano and ensemble(2021, 세계초연), 신수정의 ‘EEEGGG concertino’ for violin and ensemble(2021, 세계초연), 지성민의 ‘Concertino’ for Violin No. 2(2021,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로 이어졌다. 이후 이만방의 ‘Poem’ for Clarinet Solo(1994)와 Jörg Widmann의 String Quartet No. 3 ‘Jagdquartett’(2003)이 연주되었다.

## 열일곱 번째 이야기 | <울.동.선>

2022. 11. 20,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연주자 | 김기환 (바이올린), 이수아 (바이올린), 김경란 (첼로), 채형봉 (타악기),  
송민섭 (생황), 창작그룹 꽤념치 | 문성연 (단장), 강다혜,  
김보경, 최기량, 이재명

작곡가 | 김지영, 김두영, 신수정, 양지선, 양영광, Jared Redmond



‘음악오늘’의 열일곱 번째 이야기 <울·동·선>은 창작무용집단 ‘괘념치’와 협업하여, 음악과 무용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만들어낸 복합 예술의 무대였다. ‘울동(律動)’은 가락에 맞추어 움직이는 몸짓이며, ‘선율(旋律)’은 소리의 울동을 의미한다. 이날의 공연은 몸짓과 소리가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동선(動線)’의 자취를 남겼고, 태초에 하나였던 춤과 음악이 다시금 서로를 향해 다가가 경계를 넘어서 예술적 융합의 가능성을 선명히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은 김지영의 생황,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를 위한 ‘말 잘 듣는 사람’ (2022, 세계초연), 김두영의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무용을 위한 ‘4개의 작은 움직임’ (2022, 세계초연), 신수정의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소리로의 변환’ (2017), 양지선의 즉흥 타악기와 무용을 위한 ‘AsalatoOtalasa’ (2022, 세계초연), 양영광의 생황, 타악기 그리고 무용을 위한 ‘공간 속 울림’ (2022, 세계초연), 그리고 Jared Redmond의 증폭된 타악기,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O Time thy pyramids’ (2022,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가 연주되었다.

본 공연은 그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아 제1회 서울예술상(2023.02.27, 대학로극장 쿼드) 음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음악오늘

### - 제1회 서울예술상 음악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다

작곡가,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김 두 영

‘음악오늘’은 2022년 창작무용집단 ‘괘념치’와의 협업으로 강동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한 <울.동.선>공연으로 이듬해 ‘제1회 서울예술상 음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예술상’은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각 순수 예술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그 영애로운 상이 저 건너편 누군가 받았더라는 뉴스나 전언이 아닌, 묵직한 금빛 트로피로 ‘음악오늘’ 품에 안긴 순간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던 그 해 ‘우리’는 서울예술상을 알지 못했다. 단지 공문을 통해 내년에 새로운 시상 제도가 생긴다는 내용을 알았을 뿐이었다. ‘음악오늘’은 어느 해와 다름없이 연말의 공연을 목표로, 하지만 조금 더 도전하는 기획으로 연주단체가 아닌 현대무용단체와 만남을 가졌다. 배움의 형식으로 세미나를 열고 서로의 영역을 알아가며, 매번의 만남 속에서 즐거움과 신뢰의 시간이 쌓였다. 선율의 울(律), 움직임의 동(動), 무대 위의 선(線)을 상상하며 작곡가와 무용가들은 먼 과거 하나였던 ‘춤과 음악’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해석하는 과정과 서로에 대한 기대의 결과로 공연 <울.동.선>이 만들어졌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안도감과 기나긴 예산 정산의 시간 어느 즈음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가 기뻐했고, 화려한 수상식이 열렸고, 공연을 함께한 동료 예술인들과 축하의 자리를 나눴으며, ‘음악오늘’을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렇게 열정의 한해를 보내고 떠들썩하게 최우수상의 영예를 마음껏 누린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음악오늘’은 오늘에 있다. 그 ‘사건’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해에도, 지원금을 받은 해에도 ‘음악오늘’은 음악회를 준비했고 공연을 올렸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로 묶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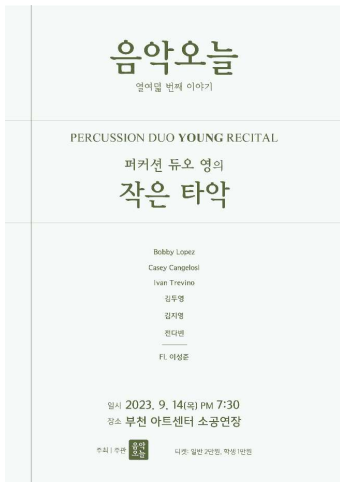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도시의 시장 한 풍경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음악오늘’ 또한 음악과 관객으로 그려진 도시의 한 풍경 속에 묵묵히 담기고자 했다. 기발한 기획과 논리적인 주장이 주목받는 화려한 풍경도 있지만, 이러한 ‘내 언어와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사회의 암묵적 압박에 스스로 지칠 때, 오히려 무심히 도시를 실천하는 풍경이 더욱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현실 너머에 있는 듯, 혼신을 다해 연주하는 음악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역시 묵묵히 도시의 한 공간을 채우는 삶의 실천으로 여기게 된다.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 땅 위의 농민처럼, 도시의 상인처럼, 그렇게 ‘도시를 실천’하는 삶의 한 풍경을 이루고자 했다.

클라리넷 다섯 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보다, 클라리넷 다섯 작품을 견주어 보는 것이 더 흥미롭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음악오늘’ 역시 다른 공연기획과 비교하고 더 나으려 애쓰기보다는 ‘음악오늘’이 할 수 있는 오늘의 음악을 실천하고 이어가며, 음악으로 그리는 도시의 한 풍경을 앞으로도 계속 그려가길 희망한다.

다시금 서울예술상을 비롯한 ‘음악오늘’에 대한 응원에 감사하며 ‘서울예술상 최우수상’에 대한 심의평을 옮긴다.

## 심의평

최우수상 수상작인 ‘음악오늘’의 〈울.동.선〉은 소리와 악기에 대한 탐구를 확장하여 무용과 음악과의 상호 연관성을 공연으로 훌륭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용과의 협업을 통해 움직임을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충분한 몰입과 설득력을 갖게 해주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여러 차례 세미나 및 사전 제작과정을 통해 ‘현대무용’과 ‘작곡’의 결합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융복합적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독창성과 수월성은 물론이고, 경직된 현대음악 공연계에 참신한 기획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작품으로 평가한다.



## 열여덟 번째 이야기 | 퍼커션 듀오 Young의 <작은 타악>

2023. 09. 14.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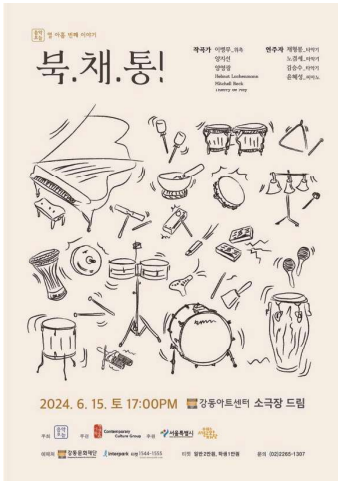
연주자 | 강주영 (타악기), 박라영 (타악기),  
이성준 (플루트)

작곡가 | Bobby Lopez, Ivan Trevino, Casey Cangelosi  
김두영, 전다빈, 김지영

‘음악오늘’의 열여덟 번째 이야기는 퍼커션 듀오 ‘Young’을 초대하여 <작은 타악>을 주제로 한 연주회를 기획하였다. 퍼커션 듀오 ‘Young’은 연주자 이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 ‘영(Young)’을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젊은 연주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타악기의 다양성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등 타악기의 음악적 가능성을 탐험해 온 ‘Young’의 발자취는 ‘음악오늘’이 걸어온 길과도 결을 같이 한다.

타악기는 인간이 삶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악기이며, 리듬은 그 시작을 다시 일깨워주는 근원의 소리이기도 하다. <작은 타악>에서 퍼커션 듀오 ‘Young’은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국내외 작곡가들의 신선한 타악 작품들을 선보이며, 우리 몸이 기억하는 언어 이전의 원초적인 소리의 경험을 다시 현대적인 어법으로 재현했다.

프로그램은 리듬과 신체 움직임의 예술을 결합하며 현대 타악기를 이끌어 온 Bobby Lopez의 ‘Conversation’ for Two Tambourines(2010), Ivan Trevino의 ‘Seesaw’ (2020), Casey Cangelosi의 ‘Theatric No.1’ (2002)과 ‘Plato’s Cave’ (2011)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이어 김두영의 두 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러시아행 야간열차’ (2023, 세계초연), 전다빈의 ‘Rhythmic Suite’ for Flute and Percussion(2023,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 김지영의 두 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Stick to Hands!’ (2023, 세계초연)의 국내 작곡가들의 신작이 연주되었다.



## 열아홉 번째 이야기 | <북.채.통!>

2024. 06. 15,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연주자 | 채형봉 (타악기), 노겸세 (타악기),  
김승수 (타악기), 윤혜성 (피아노)

작곡가 | 이병무, 양지선, 양영광

Helmut Lachenmann, Mitchell Beck,  
Thierry de mey

‘음악오늘’의 열아홉 번째 이야기는 퍼커셔니스트 채형봉, 노겸세, 김승수를 초청하여 <북.채.통!>을 주제로 펼쳐진 무대였다. 이날 공연은 팬데믹 이후 ‘북새통’의 활기를 다시 불러오며, 우리 몸이 기억하는 원초적 소리의 경험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되살려낸 자리였다. <작은 타악>(2023)에 이어 타악기의 세계를 한층 확장한 이날 공연에서, 타악기와 피아노, 전자음, 움직임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리듬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졌다.

프로그램은 Mitchell Beck의 ‘Trio’ for percussion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양지선의 ‘p.p.’ for percussion and prepared piano(2024, 세계초연), 양영광의 타악기 3인을 위한 ‘나목(裸木)’(2024, 세계초연), Thierry de Mey의 ‘Table Music’ Musique de Table, Helmut Lachenmann의 ‘Guero’ for piano, 그리고 이병무의 ‘Meta-Pattern’ for 3 percussionists(2024, 세계초연, 음악오늘 위촉곡)이 차례로 연주되었다.

특히 이 공연은 2024년 아르코예술기록원의 ‘공연 영상화 사업’에 선정되어 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 한국디지털 아카이브(DA-Arts)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공연 콘텐츠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울·동·선> - 선(線)에 관하여

독립큐레이터 김 정 수

선을 만든다.

선(線)위에 사람들이 함께 서 있다. 서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상황에서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다른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옆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한다. 바로 함께 살아가는 인간(人間)이기 때문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서 있는 공연 <울·동·선>(律動線)에서는 ‘말 잘 듣는 사람’, ‘4개의 작은 움직임’, ‘소리로의 변환’, ‘아살라토오 탈라사’, ‘오 시간, 그대의 피라미드’, ‘공간 속 울림’(생황, 타악기 그리고 舞)의 곡과 연주 그리고 무용에서 개인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변주의 선(線)이 만들어진다. ‘선을 만드는 것’, ‘선을 굶는다’는 행위는 자유를 위한 독립이 될 수도 있으며, 부분이라는 개인들이 모여 선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업의 과정일 수도 있다. 즉, 선은 자유를 위해 넘어야만 하는 선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함께 손을 잡고 의지해나가면서 만드는 하나의 선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명확해 보이지만 이면의 복잡함을 지니는 선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다. <울·동·선>의 협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예술과 문화 안에서의 장르라는 선, 음악의 선율, 움직임의 선, 일상과 예술의 선, 독립된 객체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분리와 이어짐의 연속들이 바로 그것이다.

선을 허물다.

‘음악오늘’과 창작집단 ‘괘념치’는 <울·동·선>을 통해 “먼 과거 하나였을 춤과 음악의 경계인 ‘선(線)’을 허물어 내어놓고 다시 그 선을 넘는” 일종의 실험을 시도한다.

선율의 율(律) 움직임의 동(動) 선율과 움직임의 선(線)을 상상하며 작곡가와 무용가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시작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인 <울·동·선>의 연주와 공연에 이르기까지 함께 보고 들어주는 관객까지 합쳐진 협동과정은 예측할 수 없었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청각적 소리와 시각적 움직임의 행위는 분절과 분리 즉, 해체를 갈망하지만 연결되어 있던 일종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사회 안에서의 개인 그 자체와 연결되는 관계인 인간에 대한 일종의 자아 성찰적인 측면에 관한 시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탈 중심화’ 즉, 연결된 것에서 주체를 바라보는 구조주의적인 시각과 동시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본질을 구축해 가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인 고뇌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보인다.

## 선을 벗어나다.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구획 혹은 선(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적인 행위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과의 관계가 없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리-자유-협동’ 등의 과정들이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목표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 추측해본다. <울·동·선>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음악으로 그리고 무용으로 들려주고 보여준다. 몸을 둘러싸고 있는 물체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움직임, 생황,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를 위한 ‘말 잘 듣는 사람’은 그로테스크한 몸짓으로 자유를 갈망하며 시도를 거듭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뺏고 빼앗기며 하나가 되려 하기도 하지만 결국 벗어던지고 분리되며 그 순간의 환희는 복소리와 함께 고조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벗어던지고 분리되는 순간에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다.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무용을 위한 ‘4개의 작은 움직임’에서는 분절되는 음률의 다양한 악기 소리와 더불어 더 나아가 집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신체를 통해 유발되는 소음과 예상치 못한 소리가 더해져 연극적인 요소로 몰입을 유도하며 보다 확장된 다양한 소리의 융합을 보여준다.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소리로의 변환’에서 날카롭고 예민한 바이올린 선율을 배경으로 한 선위에 등을 맞대고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각각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은 채 움직

이고 동시에 서로를 의식하고 움직인다. 둘 사이의 멀지 않은 거리는 누구도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일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개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흥 타악과 무용을 위한 ‘아살라토오타라사’는 태초의 인간들처럼 자연에 동화되어 음악과 춤을 즐기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빛은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원을 만들면서 상대방에 의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밟히기도 하면서 개인 혹은 공유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동그란 불빛, 분리와 합쳐짐의 과정이 있는 음률이 있는 청각적, 시각적인 움직임은 마치 회화처럼 밝게 빛나며 즉흥적인 음악에서 어둡고 정적인 음악으로의 변화를 반복한다. 증폭된 타악기, 바이올린, 첼로, 춤을 위한 ‘오 시간, 그대의 피라미드’에서는 고요하고 평온한 선적인 음악에 고대의 거대한 석상처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뒷모습의 사람들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선을 드러낸다. 미세한 움직임으로 세 사람은 각도를 틀어 동일한 시점을 공유하게 된다. 격정적인 음악, 인체의 움직임 이후 아주 천천히 전진하는 모습은 증폭되어 울리는 타악기, 바이올린, 첼로 연주와 함께 매우 오래된 건물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감을 선사한다. ‘공간 속 울림’(생황, 타악기 그리고 舞)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제한된 구획 혹은 틀에서의 행위를 통해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커다란 원안에서 각각은 개인의 형태로 움직이기도 하고, 서로의 옆에서 의식하며 함께 엮여 있는 상태 안에서의 움직임을 선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으로 구조 안에서의 개인과 사회 안에서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 다시 선을 만들다

공연의 마지막, 커튼콜(Curtain Call)에서 무용가, 연주가, 작곡가라는 각각의 그룹들이 만들어 내는 실제 보이는 ‘선’(線)들은 협업의 과정을 통해 각각의 여러 선이 중첩되면서 또 다른 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에 공연을 함께한 관객석의 관객들이 어우러진 선들이 더해진다.

<울·동·선>의 새로운 실험은 단지 공연 자체가 아니라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협업의 과정과 공연 그리고 그 공연을 함께하는 관객이 더해지는 전체의 과정임을 관객의 한 사람으로 경험하였다. 삶의 가까운 곳에서 실천되는 예술을 청중과 공유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며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협업을 추구하는 ‘음악오늘’과 창작집단 ‘괘념치’의 <울·동·선>을 만든 여러 선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선을 만들고 다시 허물고 또 만드는 과정이 지속되리라 기대해본다.



## 스무 번째 이야기 | 10주년 기념 음악회 소리퍼커션의 <장長.단短>

2024. 06. 15.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연주자 | [소리퍼커션]

최소리, 이효정, 이안드레, 오지성, 곽아영

작곡가 | 김지영, 신수정, 양영광, 양지선

소리 퍼커션

‘음악오늘’의 스무 번째 이야기 <장長.단短.>은 타악 연주 전문 그룹 소리 퍼커션 (SORI Percussion)을 초청해 열린 무대이다. ‘장단(長短)’은 길고 짧음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패턴과 구조를 뜻하는 개념으로, 서양 음악의 리듬이 음가의 분할과 반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듯 한국의 장단 역시 고유한 질서 속에서 본질적인 유사성을 지닌다. 이번 공연은 이러한 두 개념의 접점을 탐색하며, 전통 타악기와 현대 타악기의 융합을 통해 확장된 예술적 표현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음악오늘’은 타악 음악 연속 기획으로 <작은 타악>(2023), <북.채.통!>(2024)을 선보여 왔으며, 이번 <장長.단短.>은 그 연속 기획의 마지막이자 ‘음악오늘’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다.

프로그램은 김지영의 3인의 타악 연주자를 위한 ‘굿-나잇 퍼레이드!’(2025, 세계 초연), 양지선의 4인 타악 연주자를 위한 ‘Woodpecker’s drumming’(2025, 세계 초연), 양영광의 3인 타악 연주자를 위한 ‘피정(避靜)’(2025, 세계초연), 신수정의 3인 타악 연주자를 위한 ‘A-aPA-aPAT’(2025), 그리고 소리 퍼커션의 작품인 ‘다스름’(2023)과 ‘육삼이’(2025, 세계초연)가 무대에 오른다.

## ‘음악오늘’ 10주년 축하 메시지

음악오늘!

그 신선하고 참신했던 호기로우름을 기억합니다. 호연지기(浩然之氣)란 열 살배기, 바로 당신이겠지요. 열의 열이 되는 날엔 오늘의 감개무량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작곡가 地山 이 만 방(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나는 ‘음악오늘’을 만든 그들을 잘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을 떠올리면 음악에의 열정, 특히 새로운 음악에의 열정이 함께 떠올려진다. 이들이 기획해 오고 있는 ‘음악오늘’의 “수업”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그 무대를 기다려지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수업”들이 매년 이들의 고뇌로 이루어진 기획들이라 그랬을 거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이 현대음악을 알리고 청중과의 소통일 터인데, 이들은 한 곳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중시하여 더욱 좋았다. 그동안 이들이 이루어 낸 “수업”들을 되 돌아보니, 이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음악이론가 박 재 성(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음악오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신선한 기획 아래 따뜻한 분들과 공연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아가는 ‘음악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피스트 이 교 진

‘음악오늘’은 작곡가와 이론가로 구성된 진정한 동인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뜻을 지닌 분들이 모여 이루어낸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는 많은 사람에게 음악인 협회가 가야 할 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용에 충실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곡가 이 병 무(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

‘음악오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악오늘’은 창작과 연주뿐 아니라 학술적 토론까지 아우르며, 음악을 삶과 잇는 소중한 통로로 자리해 왔고, 국내에서 모범적인 음악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시대 음악문화를 선도하는 뜻깊은 장으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씬 없이 달려온 ‘음악오늘’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음악이론가 **안 소 영**(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2021년 늦은 겨울쯤, 신수정 선생님의 전화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나날이 몸집을 키워 가더니, 2023년 서울예술상 음악 부문 최우수상 수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바로 <울·동·선> 작품 자체의 생명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악오늘’의 긍정적이고 진지한 포용력이 창작 그룹 ‘괘념치’로 하여금 모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술에서의 진정한 크로스오버의 좋은 예가 아닐까요?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음악오늘’을 응원합니다!!!

괘념치 단장 **문 성 연**

‘음악오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악오늘’의 첫 번째 연주자로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한국에서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살아가게 해준 ‘음악오늘’과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음악오늘’이 한국 음악계에서 더욱 큰 영향력과 발전을 이루어 가도록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다시 한 번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관객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음악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클라리네티스트 **최 용 기**

‘음악오늘’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음악오늘’과 함께했던 생황 세미나, 그리고 생황과 오르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Pipe>는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음악오늘’ 10년의 한켠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작곡가와 연주자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음악오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생황 연주자 김 효 영

이름처럼,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는 단체, ‘음악오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낯선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덕분에 저 역시 낯설지 않게 살아 있는 음악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작곡가로서 음악을 향한 그 치열함과 한결같은 걸음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음악오늘’이 만들어갈 그다음의 오늘들, 앞으로의 발걸음 또한 기대합니다.

작곡가 이 수 연

‘음악오늘’의 10주년을 맞이하여 한없는 기쁨과 축하를 전합니다.

우리의 음악과 작업이 모두의 일상에 파고들어 스미는 그날까지, 그러한 가상의 ‘음악오늘’까지 계속 함께 진력하고 연주하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전 나 경(양상블 소아베)

금년도 ‘음악오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9년 전 ‘음악오늘’ 선생님들과의 조우는 작곡가로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현대음악의 중요한 장으로서, 대표적인 예술 자리로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곡가 김 유 신

‘음악오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악오늘’은 저에게 무한한 음악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안에서 인간의 생각, 감정, 상상을 표현하고 소리 내어 울리고 다시 인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음악오늘’! 오늘의 음악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울림으로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성악가 이 재 은

한주에게 ‘음악오늘’

어제음악도, 내일음악도 아닌 ‘음악오늘’은 화려하거나 거대한 외형을 뽐내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모습으로 10년 전의 ‘음악오늘’부터 내일의 ‘음악오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오늘’입니다. 잘 지내셨죠?”라는 섭외 전화를 다음 10년 후에도 받기를 바랍니다.

즉흥연주가 이 한 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울곧게 걸어온 ‘음악오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리와 이어준 ‘음악오늘’의 노력이 있었기에, 삶이 더욱 넓고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심과 열정으로 걸어온 깊고 단단한 여정이 계속해서 큰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이 영 우

10년, 그 무한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또 1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길 소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후원자 김 영 희

## 수업 시리즈: 음악과 삶을 잇는 배움의 여정

음악이론가,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김 은 진

‘음악오늘’에 처음 합류했을 때, 신수정, 김두영 두 대표님과의 대화 속에서 작곡가-연주자-음악학자 및 이론가, 이 세 축이 긴밀히 호흡하며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열어가자는 비전을 공유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두 대표님은 출범 초기부터 ‘음악오늘’을 단순한 음악 단체를 넘어, 현대음악을 중심으로 창작-연주-이론이 균형을 이루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음악이론가인 필자 역시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나 ‘한국서양음악학회’ 등에서 논의된 연구들이 연주자와 작곡가, 그리고 일반 청중과 직접 소통하여 풍성한 시너지를 이루기를 바랐다. ‘음악오늘’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그 결실은 수업 시리즈를 통해 구현되었다.

2018년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은 수업 시리즈는, “음악을 삶의 중심에 둔 다양한 음악인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것”을 취지로 기획되었다. 그동안 이 시리즈는 음악이론, 창작기법, 악기 연주법, 융합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며,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층 넓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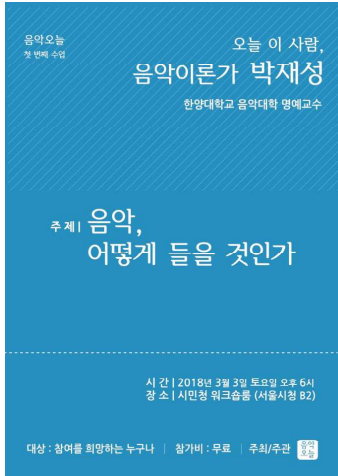
첫 번째 수업(2018.03.03, 시민청)은 음악이론가 박재성 교수(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의 <음악, 어떻게 들을 것인가>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 강연은 작곡가, 연주자, 이론가, 음악애호가를 한 자리에 모아, 음악 작품에 내재한 구조적 아름다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날의 울림은 네 번째 수업(2019.03.30, 플랫폼엘) <음악, 그 진정한 가치>로 이어지며 더욱 깊어졌다. 다섯 번째 수업(2022.01.08,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는 음악이론가 안소영 교수(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가 <한스 아이슬러의 대중적 시선>을 주제로, 아이슬러의 음악세계를 조명하며, 12음 기법이 어떻게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명쾌하게 풀어냈다. 여덟 번째 수업(2023.10.21, 아트스페이노스)에서는 신인선 음악학자가 평생 연구해 온 리게티의 음악어법을 집대성하여 그의 창작관을 깊이 있게 공유했다. 이어 아홉 번째 수업(2024.10.26, 아트스페이노스)에서는 이병무 작곡가(한국

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가 자신의 작품 세계와 핵심 작곡 기법을 소개하며, 동시대 작곡가와 후학들이 현대적 작곡 어법을 탐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을 열었다.

수업 시리즈는 연주자들을 강연자로 초청해 각 악기가 지닌 구조적, 음향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두 번째 수업(2018.03.17, 예술가의 집)에서는 생황 연주자 김효영이 <생황의 이해와 음악 어법>을 통해 생황의 구조와 음향 생성 방식, 그리고 현대적 연주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세 번째 수업(2019.03.18, 시민청)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지애리와 하프 연주자 이교진이가 <줄의 가락, 손의 가락>을 주제로 두 발현악기의 주법 및 음향적 특성을 소개하였다. 이어 열 번째 수업(2025.02.18~20, 소리퍼커션 SP스튜디오)에서는 타악 그룹 ‘소리 퍼커션’이 <한국 타악기 연주법과 장단>을 주제로 직접 시연을 펼치며, 전통 타악기의 구조와 리듬 원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악기 중심의 수업들은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음악오늘’의 이야기 시리즈 공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수업이 공연으로 이어지고 공연이 다시 배움으로 확장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수업 시리즈는 음악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예술 장르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여섯 번째 수업(2022.01.15,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장웅조 교수(홍익대학교 문화경영학과 대학원장)는 <앙트러프러너십과 음악>(Entrepreneurship and Music)을 통해 예술기업가정신과 음악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조명하며, 음악가들에게 예술경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어 일곱 번째 수업(2022.04.23, 시민청)에서는 창작그룹 ‘괘념치’의 문성연 단장이 ‘음악오늘’ 이야기 시리즈 <울.동.선>과 연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서 작곡가와 무용가들은 의견을 교류하며 하나의 작품을 구축해 가는 창작의 과정을 함께 모색했다.

‘음악오늘’의 수업 시리즈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해마다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꾸준함은 단순한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묵묵히 연구하고, 창작하고, 연주하는 예술가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결과이다. 이러한 진정성은 동시대 음악가와 후학은 물론, 더 넓은 대중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것이다. 비영리 단체가 이처럼 폭넓은 스펙트럼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주최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음악오늘’이 지닌 저력이다. 앞으로도 ‘음악오늘’의 수업 시리즈는 계속될 것이며, 그 길 위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함께 탐색하는 배움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첫 번째 수업 | 음악이론가 박재성

주제 | 음악, 어떻게 들을 것인가  
2018. 03. 03, 시민청 워크숍룸

‘음악오늘’의 첫 번째 수업은 음악이론가 박재성(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을 초청하여 <음악,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의에서는 평생을 음악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온 박재성 교수의 깊은 시선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음악에 접근해야 하는가’, ‘음악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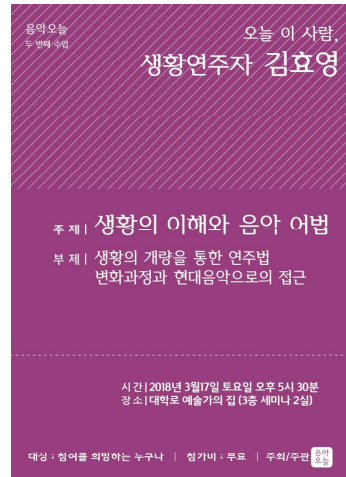
이 강의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내재한 질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클래식 음악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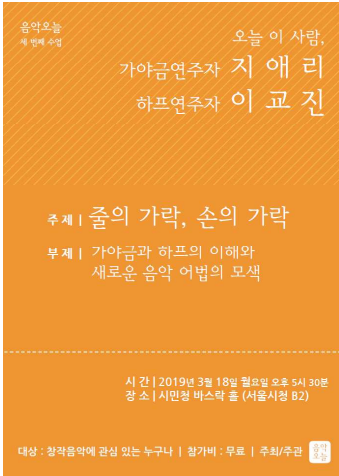
## 두 번째 수업 | 생황연주자 김효영

주제 | 생황의 이해와 음악 어법  
부제 | 생황의 개량을 통한 연주법 변화과정과 현대음악으로의 접근  
2018. 03. 17, 대학로 예술가의 집

‘음악오늘’의 두 번째 수업은 생황연주자 김효영과 함께 그의 악기, 생황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 수업의 부제는 ‘생황의 개량을 통한 연주법 변화과정과 현대음악으로의 접근’으로, 전통 악기로서의 생황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소리를 찾아왔는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효영은 생황음악의 대중화뿐 아니라 현대 창작음악 속에서의 실험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온 연주자이다. 그는 한국 생황의 구조적 특성과 개량 과정을 설명하며, 이에 따라 변화한 연주법이 현대음악의 표현 영역을 어떻게 넓혀가는지를 다양한 시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생황이 지닌 고유의 음색과 그 확장된 가능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 세 번째 수업 | 가야금연주자 지애리, 하프연주자 이교진

주제 | 줄의 가락, 손의 가락

부제 | 가야금과 하프의 이해와 새로운 음악어법의 모색  
2018. 03. 17, 시민청 바스락 홀

‘음악오늘’의 세 번째 수업은 가야금 연주자 지애리와 하프 연주자 이교진을 초청하여 <줄의 가락, 손의 가락>을 주제로 열렸다. 부제인 ‘가야금과 하프의 이해와 새로운 음악어법의 모색’은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발현악기의 구조와 연주법, 그리고 음악적

언어를 탐구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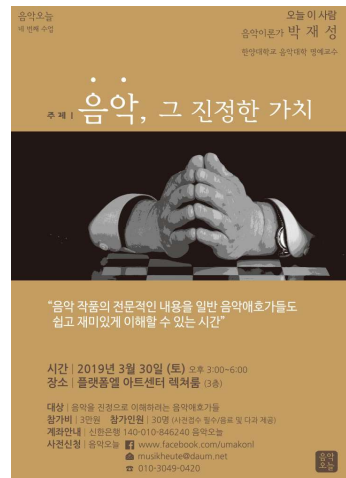
수업의 문은 지애리의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 연주로 열렸다. 이어 두 연주자는 각 악기의 발굴과 역사, 음향적 특징 및 연주 원리를 소개하며, 현대음악 속에서 가야금과 하프가 새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한 두 악기의 만남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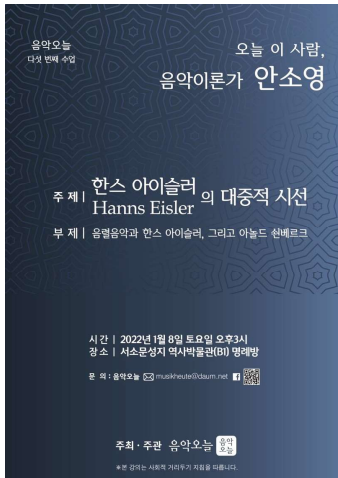
## 네 번째 수업 | 음악이론가 박재성

주제 | ‘음악’, 그 진정한 가치  
2018. 03. 30, Platform-L

‘음악오늘’의 네 번째 수업은 음악이론가 박재성(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을 다시 초청하여 <음악, 그 진정한 가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수업은 첫 번째 수업 <음악,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이어, 음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적 가치를 탐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수업은 음악 비전공자와 음악애호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전문적 내용을 담으면서도 음악의 구조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다. 이를 통해 음악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긴 질서와 의미,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다섯 번째 수업 | 음악이론가 안소영

주제 | 한스 아이슬러(Hans Eisler)의 대중적 시선

부제 | 음렬음악과 한스 아이슬러, 그리고 아놀드 쇤베르크

2022. 01. 08,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음악오늘’의 다섯 번째 수업은 음악이론가 안소영(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을 초청하여 <한스 아이슬러(Hans Eisler)의 대중적 시선>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수업은 쇤베르크의 제자이자 20세기 사회 참여적 음악의 대표적 인물인 한스 아이슬러의 음악 세계를 중심으로, 그가 스승 아놀드 쇤베르크의 음렬기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형하여 ‘대중 속의 음악’으로 확장했는가를 탐구한 자리였다. 안소영 교수는 아이슬러의 음렬적 시도와 주요 작품을 분석하며, 그가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음렬음악이 지닌 예술적 깊이와 대중적 가능성이 또 하나의 시선으로 열리는 경험이 이어졌다.

## 여섯 번째 수업 |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주제 | 앙트러프러너십과 음악  
/ Entrepreneurship and Music

2022. 01. 15,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음악오늘’의 여섯 번째 수업은 장웅조(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대학원장) 교수를 초청하여 <앙트러프러너십과 음악>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이날 장웅조 교수는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예술이 기업 경영에 창의적 동력을 제공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예술과 비즈니스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음악가가 자신의 예술 활동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며, 예술이 새로운 창조적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일곱 번째 수업 | 창작그룹 '괘념치'

주제 | 울동과 선율

부제 | 춤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

2022. 04. 23, 시민청 바스락 홀

‘음악오늘’의 일곱 번째 수업은 창작무용집단 ‘괘념치’를 초청해 <움동과 선율>을 주제로, 문성연 단장의 진행 아래 열렸다. 부제는 ‘춤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으로 춤과 음악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수업은 같은 해 11월에 공연된 ‘음악오늘’의 열일곱 번째 이야기 <움·동·선>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그 연장선에 놓인 시간이기도 했다. 이날은 ‘괘념치’의 무용가들과 <움·동·선>의 참여 작곡가들이 함께 모여, 몸의 리듬과 음악의 리듬이 어떻게 만나고 결합될 수 있는지를 교류하였다. 무용가들은 각기 다른 장르의 움직임의 선보였고, 작곡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음악과 춤이 교차하는 지점을 다양하게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움·동·선>공연으로 이어질 예술적 교감의 방향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었다.

## 여덟 번째 수업 | 음악학자 신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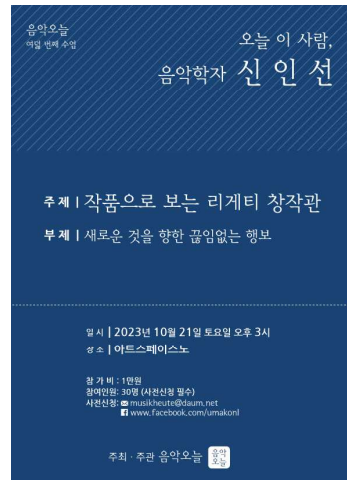
주제 | 작품으로 보는 리게티 창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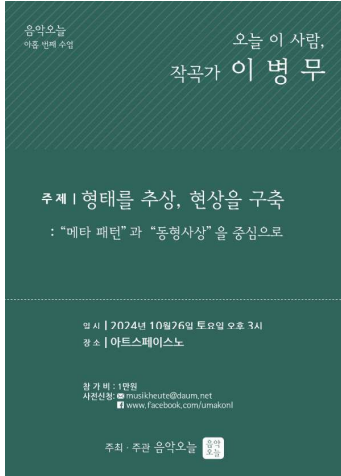
부제 | 새로운 것을 향한 끊임없는 행보

2023. 10. 21, 아트스페이스노

‘음악오늘’의 여덟 번째 수업은 음악학자 신인선을 초청하여 <작품으로 보는 리게티 창작관>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부제인 ‘새로운 것을 향한 끊임없는 행보’는 20세기 현대음악의 거장 리게티(György Ligeti)의 예술 세계를 작품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날 신인선 강연자는 리게티의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창작이 어떻게 ‘새로운 소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리게티의 실험적 음악이 단순한 난해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탐구와 예술적 진정성이 구축한 결과물임을 새롭게 인식하며, 그의 음악이 지닌 질서와 음향적 확장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아홉 번째 수업 | 작곡가 이병무

주제 | 형태를 추상, 현상을 구축

: "메타 패턴"과 "동형사상"을 중심으로

2024. 10. 21, 아트스페이스노

‘음악오늘’의 아홉 번째 수업은 작곡가 이병무(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를 초청하여 <형태를 추상, 현상을 구축: “메타 패턴”과 “동형사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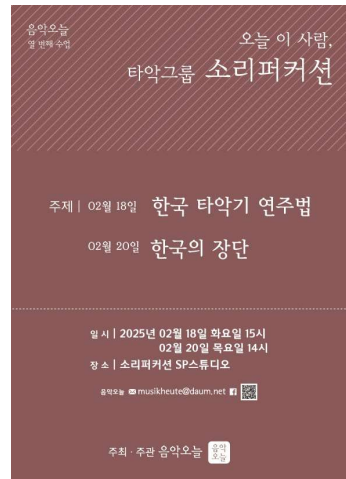
이날 이병무 교수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이루는 핵심 개념인 ‘메타 패턴’과 ‘동형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 속 구조와 반복이 어떻게 하나의 질서와 감각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수학적 사고와 음악적 사상이 만나는 지점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제시하며, 소리를 통해 사고하고 이해하며, 그의 음악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하였다.

## 열 번째 수업 | 타악그룹 '소리 퍼커션'

주제 | I. 한국 타악기 연주법 / II. 한국의 장단

2025. 2. 18 / 2.20, 소리퍼커션 SP 스튜디오

‘음악오늘’의 열 번째 수업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타악 그룹 ‘소리 퍼커션’ (Sori Percussion)을 초청하여 <I. 한국 타악기 연주법 / II. 한국의 장단>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 수업은 2025년 12월 12일에 열릴 ‘음악오늘’의 스무 번째 이야기 <장長. 단短.>과 연장선에 놓인 자리로, 연주자와 창작가가 함께 모여 전통 타악기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현대 창작음악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첫째 날에는 한국 전통 타악기의 구조와 음색, 연주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시연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전통 장단의 구조와 리듬적 원리를 실제 연주를 통해 익히는 실습이 이어졌다. ‘소리 퍼커션’의 연주자들은 풍부한 무대 경험과 섬세한 해석을 바탕으로, 전통 타악기의 리듬이 현대음악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변주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이 수업을 통해 전통 타악기를 현대 창작곡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신수정 | 김두영 | 김은진 | 양지선 | 김지영 | 양영광 | 도하나



# 지난 시간들

**음악오늘**  
내 번째 이야기

**YONGKI CHOI  
CLARINET RECITAL  
최용기의 클라리넷**

클라리넷 Yong Widmann - 연주용 단주명  
김용환 후원금 지원(명곡원)

일시: 2015. 9. 24(목) 오후 7:30  
장소: 동홍아트센터 공연장(1층)



**음악오늘**  
내 번째 이야기

2015년 12월 1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uo  
콘서트  
CONCERT**

2015년 12월 19일 오후 6시  
경동 복카레 산 디아미노(San Damiano)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1층

- 문 광연의 임장은 무료입니다 -

주최: 산디아미노, 주유, 문광연



**음악오늘**  
내 번째 이야기

**Ensemble Soave  
소아베의 현악 사중주  
(산자의 관망과 풍경)**  
[현악: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김용환, Ludwig van Beethoven  
문재명, György Ligeti

일시: 2016. 4. 18(일) 오후 7:30  
장소: 일신홀 ILSHIN HALL

주최: 문광연, 주유, 김용환, 문재명

주최 후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음악오늘**  
내 번째 이야기

**Renate Kreis-Armin  
Flute solo & Ensemble**

독일 음악계의 거장인 레나테 크라이스-아르민의 플루트 솔로와 그로크 합창

1. 플루트: Renate Kreis-Armin, 소프라노, 콘트라베이스: 김용환

2016.10.04 TUE 7:30PM  
장소: ILSHIN HALL

주최: 한국문화재단, 주유, 김용환, 문재명



**음악오늘**  
내 번째 이야기

**이영우의 피아노**  
오늘, 여기, 함께

김도훈, 김복수, 김도훈, 김복수, 김도훈, 김복수

2016.10.06 THU 7:30PM  
장소: ILSHIN HALL

주최: 한국문화재단, 주유, 김용환, 문재명



이영우의 피아노

**음악오늘**  
두 번째 이야기

LIEDERABEND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 온전히 음악이 되어 -

2015. 12. 22(수) PM 8:00  
티켓 10,000원



기타리스트 **황민웅**의 울림  
Classical Guitar Recital

2016년 6월 29일 (수) 오후 7시30분  
정동 북카페 산 다미아노(San Damiano)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다섯 번째 이야기

음악오늘 여덟번째 이야기

2016. 03. 01  
수요일 7:30 p.m.  
정동 산 다미아노



**음악오늘**  
두 번째 이야기

LIEDERABEND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Christmas Concert)

2016. 12. 22(수) PM 8:00  
정동 북카페 산 다미아노 (동대문)





# 가을노래



음악을 10주년

열린 빈케 이야기

이한주 **주**  
사토 유키에 **기**  
계수정 **오**

초대연주자  
이수아 바이올린 · 김효숙 가야금

일시 | 2017. 11. 12 (일) PM 5:00 장소 | 대학로 이음아트홀(5F) 티켓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음악을 10주년 열린 빈케 이야기

LIEDERABEND

쇼르티노, 이젠슨과 피아니스트 우세영의 가을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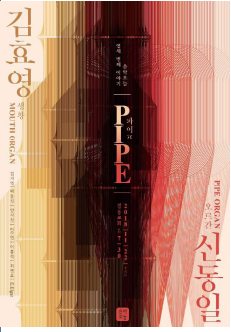
(L'Invitation au Voyage)  
(여행으로의 초대)

Host: Daehyeon Park, Pyeoungwoo Kim  
연주: 김효숙, 이한주

일시 | 2018. 02. 25 (일) PM 8:00  
장소 | 대학로 이음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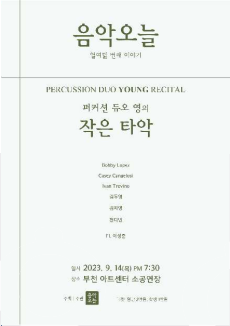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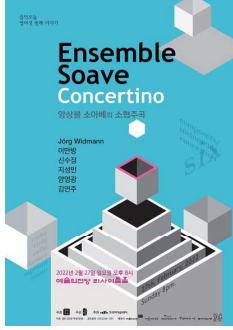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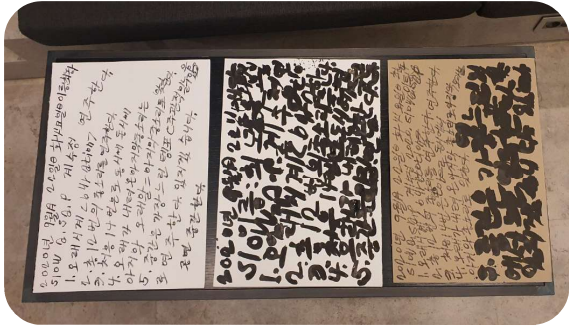
티켓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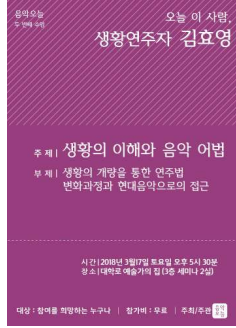


# 이교진









# 장어의 떠맡기



정소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너무 잘 들었고



음악오늘  
가인제 10년

오늘 이 사람,  
음악이론가 박재성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주제 | 음악,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시간 | 2025년 3월 3일 목요일 오후 6시  
장소 | 시민청 워크숍실 (서울시청 8층)

대상 | 음악을 희망하는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 주최/주관

음악오늘  
가인제 10년

장長, 단短.  
소리 피리선배

2025. 12. 12. 금 19:30PM \*JCC 에티켓콘서트

대상 | 음악을 희망하는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 주최/주관



음악오늘  
가인제 10년

오늘 이 사람,  
가야금연주자 지애리  
하프연주자 이교진

주제 | 줄의 가락, 손의 가락  
부제 | 가야금과 하프의 이해와  
새로운 음악 어법의 모색

시간 | 2025년 3월 14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장소 | 시민청 비스킷 홀 (서울시청 8층)

대상 | 음악흥취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 주최/주관





음악오늘  
오늘 이 사람  
음악이론가 박재성

주제 | 음악, 그 진정한 가치

"음악 작품의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 음악애호가들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시간 | 2022년 3월 29일 (토) 오후 2:00-3:00  
장소 | 플랫폼홀 덕토센터 책처음 (내)

대상 |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  
장차 | 10월 1일 (토) 20:00-22:00 (내)  
제작비 | 1만원 (10월 1일 공연에 포함됨)  
신청방법 | 음악오늘 (www.facebook.com/musictoday)  
문의 | 010-9339-3420



음악오늘  
오늘 이 사람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강웅조

주제 | 앙트러프러니십과 음악  
Entrepreneurship and Music

일시 | 2022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서소문상지 역사박물관 1층 명대방

주최 | 문화 예술오늘



음악오늘  
오늘 이 사람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웅조

주제 | 앙트러프러니십과 음악  
Entrepreneurship and Music

일시 | 2022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서소문상지 역사박물관 명대방



음악오늘  
오늘 이 사람  
음악학자 신인선

주제 | 작품으로 보는 리게티 창작관  
부제 | 새로운 것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

일시 | 2022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아트스페이스노

장차 | 11월 19일 (토) 20:00-22:00 (내)  
제작비 | 10,000원 (내)  
신청방법 | musictoday@naver.com  
www.facebook.com/musictoday

주최 | 문화 예술오늘



음악오늘  
오늘 이 사람  
타악그룹 소리퍼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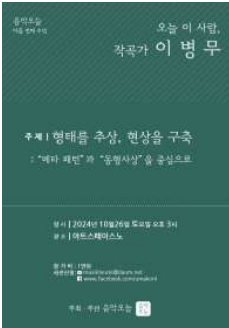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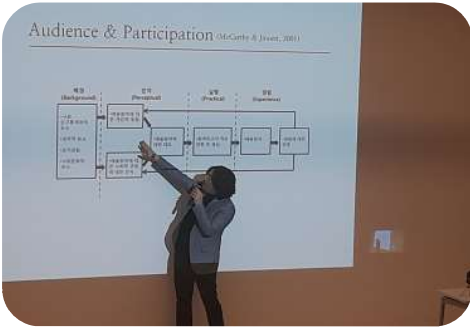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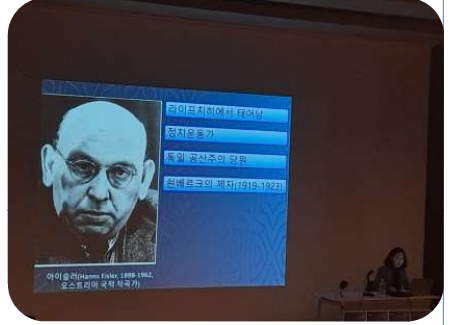
주제 | 02월 18일 한국 타악기 연주법  
02월 20일 한국의 장단

일시 | 2022년 02월 18일 화요일 15시  
02월 20일 목요일 14시  
장소 | 소리퍼커션 SP스튜디오

문의 | musictoday@naver.com

주최 | 문화 예술오늘





## 음악오늘 연혁

- 
- 2015.** 09.24. 첫 번째 이야기 | 최용기의 <클라리넷>  
 12.12 두 번째 이야기 |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 운율이 음율이 되어  
 12.19 세 번째 이야기 | 박성호, 김지현의 <크리스마스 듀오 콘서트>
- 
- 2016.** 04.18 네 번째 이야기 | 앙상블 '소아베'의 <현악 사중주> | 사각의 긴장과 균형  
 06.29 다섯 번째 이야기 | 기타리스트 황민웅의 <울림>  
 10.04 여섯 번째 이야기 | 레나테 그라이스-아르민 Renate Greiss-Armin의 <플루트> | 홀로, 그리고 함께  
 10.06 일곱 번째 이야기 | 이영우의 <피아노> | 오늘 · 여기 · 함께  
 10.26 여덟 번째 이야기 | <인물> Bittersweet #5  
 12.22 아홉 번째 이야기 |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 Christmas Concert
- 
- 2017.** 03.18 열 번째 이야기 | 최용기의 <클라리넷> Stradeum Live  
 11.12 열한 번째 이야기 | 이한주, 사토유키에, 계수정의 <즉흥>
- 
- 2018.** 03.03 첫 번째 수업 | 음악이론가 박재성: <음악, 어떻게 들을 것인가>  
 03.17 두 번째 수업 | 생황연주자 김효영: <생황의 이해와 음악 어법> | 생황의 개량을 통한 연주법 변화과정과 현대음악으로의 접근  
 10.25 열두 번째 이야기 | 이재은, 우세령의 <가을우편> | 여행으로의 초대  
 11.22 열세 번째 이야기 | 김효영, 신동일의 <Pipe>
- 
- 2019.** 03.18 세 번째 수업 | 가야금 연주자 지애리, 하프 연주자 이교진: <줄의 가락, 손의 가락> | 가야금과 하프의 이해와 새로운 음악어법의 모색  
 03.30 네 번째 수업 | 음악이론가 박재성: <음악, 그 진정한 가치>  
 11.19 열네 번째 이야기 | 지애리, 이교진의 <줄>
-

<b>2020.</b>	09.22	열다섯 번째 이야기   이한주, 사토유키에, 계수정의 <즉흥 II>
<b>2021.</b>	03.15	특별한 이야기   프로젝트 앙상블 '음악오늘' Jörg Widmann <새것, 오래된 것, 빌려온 것>
<b>2022.</b>	01.08	다섯 번째 수업   음악이론가 안소영: <한스 아이슬러의 대중적 시선>   음렬음악과 한스 아이슬러, 그리고 아놀드 쇤베르크
	01.15	여섯 번째 수업   장웅조 교수: <Entrepreneurship and Music>
	02.27	열여섯 번째 이야기   앙상블 '소아베'의 <소협주곡>
	04.23	일곱 번째 수업   창작그룹 '괘념치': <울동과 선율>   춤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
	11.20	열일곱 번째 이야기   <울.동.선>
<b>2023.</b>	02.28	제1회 서울예술상 음악부분 최우수상 수상
	09.14	열여덟 번째 이야기   퍼커션 듀오 Young의 <작은 타악>
	10.21	여덟 번째 수업   음악학자 신인선: <작품으로 보는 리게티 창작관>   새로운 것을 향한 끊임없는 행보
<b>2024.</b>	06.15	열아홉 번째 이야기   <북.채.통!>
	10.26	아홉 번째 수업   작곡가 이병무: <형태를 추상, 현상을 구축>   "메타 패턴"과 "동형사상"을 중심으로
<b>2025.</b>	2.18-20	열 번째 수업   타악그룹 '소리 퍼커션': <I. 한국 타악기 연주법 / II. 한국의 장단>
	12.12	스무 번째 이야기   소리 퍼커션의 <장長.단短.>

**첫 번째 이야기 | 최용기의 <클라리넷>**

김두영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노래' | 'Lied' for Bb-Clarinet and Piano (2007) | 한국초연, 김용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Improvisation' | 'Improvisation' for clarinet and piano (2015)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류창순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처세술' | 'Lebenskunst' für Klarinette Solo (2015)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Joerg Widmann 5 Bruchstücke for clarinet and piano (1997), Joseph Horowitz Sonatina for Clarinet and Piano | 1981, 신수정 클라리넷을 위한 '매우 짧은 앵글곡' | Eine sehr kurze Zugabe Komposition für Klarinette Solo (2015) | \*세계초연, 윤이상 클라리넷을 위한 '피리' | 'Piri' for Oboe(or Clarinet) (1971), 최용기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독주곡 'fantasie' | Fantasie for Clarinet and Piano one Player

**두 번째 이야기 |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이성민 별 | 안상학 시 | \*세계초연, 장한솔 눈은 나리네 | 박용철 시, 정현정 연가곡 첫, 사랑 중 | \*세계초연, 김유신 성승호 시집에 의한 두 개의 가곡 | \*세계초연, 김두영 가는 길 | 김소월 시, 이성민 꽃잎이 흔들리는 날은 | 채수영 시, 김순남 진달래꽃 | 김소월 시 산유화 | 김소월 시, 이상근 아가 Op. 57 | 유치환 시, 이영조 황진이 시조에 의한 여섯 개의 노래 중

**세 번째 이야기 | 박성호, 김지현의 <크리스마스 듀오 콘서트>**

Anton Diabelli Grande Sonate Brillante op.102, A. Ginastera Danzas Argentinas op.2 #1~3, Luigi Boccherini Introduction and Fandango, David Kellner Fantasia d-moll, Fantasia D-dur, Agustin Barrios Mangore Julia Florida, The christas song

**네 번째 이야기 | 소아베 Ensemble Soave의 <현악사중주> | 사각의 긴장과 균형**

김용환 Tales of swings for stringquartet (2016) | \*세계초연 (BYAC 전국작곡콩쿠르 수상작), L.v. Beethoven 대푸가 op.133 | Grande Fuge Op. 133 (1825), 윤채영 Stringquartet Nr. 1 'Fantasy' (2016) | \*세계초연 (BYAC 전국작곡콩쿠르 수상작), G. Ligeti Stringquartet Nr. 1 'Metamorphoses nocturnes' (1953-54)

**다섯 번째 이야기 | 기타리스트 황민웅의 <울림>**

S. Yradier 비둘기(La Paloma), F. Tárrega 탱고(Tango), 그네(El Cumpio)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Recuerdos de la Alhambra), J. M. Gallardo del Rey 노래와 춤(Canción y Danza), J. L. Merlin 세 개의 사랑의 노래(3 Canciones de Amor), 김정혁 눈빛, J. L. Merlin Carnavalito, Evocación Joropo, F. Tárrega 그란호따(Gran Jota)

**여섯 번째 이야기 | 레나테 그라이스-아르민 Renate Greiss-Armin의 <플루트> | 홀로, 그리고 함께**

Joseph Bodin de Boismortier Sonate g-moll für drei Querflöten und Basso Continuo, Claude Debussy 'Bilitis' pour Flöte et Piano, 신수정 Vier kleine Stücke für Flötentrio (2016) | \*세계초연, François Doppler Andante et Rondo, Op. 25, C. P. E. Bach Solosonate a-Moll für Flöte allein, 윤이상 'Garak' for Flute and Piano, Caspar Kummer Trio Brillant für drei Flöten D-Dur, Op. 30

**일곱 번째 이야기 | 이영우의 <피아노> | 오늘, 여기, 함께**

이도훈 피아노 독주를 위한 '별이 빛나는 밤에' | 'Sternennacht' für Klavier solo (2015-2016), 김택수 바흐 주제에 의한 300개 이상의 작은 변주들 | 300+ Microvariations on a Bach Theme (2015) | 한국초연, 유도원 피아노 독주를 위한 '직선과 사선 무늬들' | 'The patterns of straight and oblique line' for solo piano (2016)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김정훈 피아노 독주를 위한 '먼 가장자리' | 'ferner rAND' for Piano solo (2014), 이성현 피아노 독주를 위한 '색깔놀이' | 'Colour play' for Pianoforte (2016), 최지연 피아노 독주를 위한 '3번 모음곡' | 'Troisieme suite' pour piano seul (2016)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여덟 번째 이야기 | <인물> Bittersweet #5**

배현정 심바토피아 | simbatopia (인물: 심바/애니메이션영화 라이온킹), 권재훈 노인과 바다 (인물: 노인/노인과 바다), 김성은 미도리 (인물: 미도리/상실의 시대), 강은영 25년 가야금을 위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인물: 주인공 진영/ 박경리 단편소설 불신시대), 김부연 다시 생각해봐 | Think Again (인물: 나무와 소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윤페턴 시간 | Vanitas (인물: 소리로 기억하는 누군가)

**아홉 번째 이야기 |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 Christmas Concert**

Arvo Part 내 마음은 저 높은 곳에 | My heart's in the Highlands (2000), 김유신 위대한 아름다움 | Le grande bellezza (2016)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 Karl Michael Komma 프리드리히 뢰들린의 단편에 의한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가곡 | Fünf Gesaenge nach Fragmenten von Friedrich Hölderlin für Sopran und Klavier (1975), Arvo Part 크리스마스 자장가 | Weihnachtliches Wiegenlied (2002), 이성민 크리스마스꽃에 대하여 I | Auf eine Christblume I (2016), 크리스마스꽃에 대하여 II | Auf eine Christblume II (2016)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Robert Schumann 니콜라우스 레나우 6개의 가곡과 레퀴엠, op. 90 | Sechs Gedichte von N. Lenau und Requiem, op. 90 (1850)

**열 번째 이야기 | 최용기의 <클라리넷> Stradeum Live**

Carl Maria von Weber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트 E flat 장조 Op. 48 | Grand Duo Concertant for clarinet & piano in E flat major Op. 48 (1962), Jörg Widmann 클라리넷을 위한 '판타지' | 'Fantasie' for Clarinet Solo (1993), 최용기 클라리넷 콰르텟을 위한 '다윗의 춤' | 'David's Waltz' for Clarinet Quartet (2017) | \*세계초연, 이성현 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여섯 개의 오마주 - 6번, 윤이상의 오마주 | 6 Homages for Clarinet Solo - 6. Homage to Isang Yun (2016)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Joseph Horowitz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네 | Sonatina for Clarinet and Piano (1981)

**열한 번째 이야기 | 이한주, 사토유키에, 계수정의 <즉흥>**

신수정 바이올린과 즉흥연주자를 위한 '소리로의 변역' | 'Translation to Sounds' for violin and improvising performer (2017) | \*세계초연, 양지선 일렉기타, 피아노, 이-보우를 위한 산(山) | San(山) for electric guitars, piano, e-bows (2017) | \*세계초연, 계수정 첩첩(疊疊) (2017) | \*세계초연, 김지영 곡 쓰다는 것의 부조리 | The Absurdity of Writing Music (2017)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김두영 대금, 즉흥악기 그리고 소리녹음 위한 '산책길' (2018) | \*세계초연, 박순영 불확정성 | Indeterminacy (2017)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열두 번째 이야기 | 이재은, 우세령의 <가을우편> | 여행으로의 초대**

Henri Duparc 여행으로의 초대 | L'Invitation au Voyage (C. Baudelaire) (1870), 황홀 | Extase (J. Lahor), 슬픈노래 | Chanson triste (J. Lahor), Hans Pfitzner 인성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가곡 Op. 7 | Fünf Lieder für Singstimme und Klavier Op.7 (1888-1900), 김두영 사랑의 선물 (2018) | \*세계초연 이불 (2018) | \*세계초연, 가는 길 (2014), Alban Berg 일곱 개의 초기 가곡 | Sieben Frühe Lieder (1905-1908)

**열세 번째 이야기 | 김효영, 신동일의 <Pipe>**

Edward Elgar Sonata No.1 in G-major Allegro Maestoso (1895), 이수연 생황 독주를 위한 '당김을 통하여' | 'Durch Ziehen' fuer Shenghwang Solo (2018)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 김지영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산으로 오르는 배' | 'A ship to the mountain' for Shenghwang and Organ (2018) | \*세계초연, 이홍석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가을에 쓸쓸한 자...' | 'window-winddoor' for Shenghwang and Organ (2018)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배동진 생황, 비올라 그리고 첼로를 위한 '만남' | 'Rencontres' for Shenghwang, viola and violoncello (2018)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양지선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나선형 파이프' | 'Spiral pipes' for Shenghwang and Organ (2018) | \*세계초연, 최명훈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로코코-시나위' | 'Rococo-Sinawi' für Shenghwang und Organ (2018)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열네 번째 이야기 | 지애리, 이교진의 <줄>**

정남희제 황병기류가야금 산조 | Gayageum Sanjo, 양지선 하프 독주를 위한 '쿨린 아넨' | 'Kuulin Aanen' for Harp Solo (2019) | \*세계초연, 김지영 가야금과 하프를 위한 '점의 변주' | 'Point variation' for Gayageum and Harp (2019) | \*세계초연, 고병량 하프와 가야금 소리를 활용한 '감성과 선택 사이의 얽힘' 'Entanglements between Sensibility and Selectivity' utilising the Sound of Harp and Gayageum (2019)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윤이상 하프 솔로를 위한 '균형을 위하여' | 'In Balance' for Harp Solo (1987), 신수정 가야금과 하프를 위한 '작은 소곡' | 'Eine kleine Komposition' für Gayageum und Harfe (2019) | \*세계초연, 김두영 가야금 솔로를 위한 '다스름' | 'Daseureum' für Gayageum Solo (2019) | \*세계초연, 문석민 가야금과 하프를 위한 '카탈로그' | 'Catalogue' for Gayageum and Harp (2019)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

**열다섯 번째 이야기 | 2nd Live <즉흥>**

계수정 'a.S.a.p' for Bells (feat. 캘리그라프), 김지영 'The Absurdity of Writing Poetry II' for e-guitar, piano,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typewriter, 신지수 '전원소나타' for e-guitar, piano, toy pianos(1 player) and percussion, 양영광 '야우(夜雨)' for piano, e-guitar,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recorded sounds with live electronics, 양지선 'recollection of the mutual moments I' for e-guitar, piano by four hands and experimental instruments, 홍윤경 'The goblin's song' for e-guitars, piano, toy piano, and experimental instruments

**특별한 이야기 | 프로젝트 앙상블 <음악오늘> | Jörg Widmann <새것, 오래된 것, 빌려온 것>**

Jörg Widmann Quartet No. 3 'Jagdquartett' (2003), Fieberphantasie für Klavier, Streichquartett und Klarinette (auch Bassklarinetten) (1999), Nachtstück für Klarinette, Violoncello und Klavier (1998), String Quartet No. 5 'Versuch über die Fuge' mit sop. (2005)

**열여섯 번째 이야기 | 앙상블 소아베의 <소협주곡>**

Jörg Widmann String Quartet No.3 'Jagdquartett' (2003), 이만방 Poem for Clarinet Solo (1994), 신수정 EEGGGG conertino for violin and ensemble (2021) | \*세계초연, 지성민 Concertino for violin No.2 (2021)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양영광 Vox clamantis in deserto concertino for piano and ensemble (2021) | \*세계초연, 김연주 Eternal Recurrence for Soprano, Clarinet in Bb, Viola and Violoncello (2021)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젊은 작곡가 위촉곡

**열일곱 번째 이야기 | <울.동.선>**

Jared Redmond 증폭된 타악기, 바이올린,첼로를 위한 'O Time thy pyramids' (2022)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김지영 생황,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를 위한 '말 잘 듣는 사람' (2022) | \*세계초연, 김두영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무용을 위한 '4개의 작은 움직임' (2022) | \*세계초연, 양지선 즉흥 타악기와 무용을 위한 'AsalatoOtalasa' (2022) | \*세계초연, 양영광 생황, 타악기 그리고 무용을 위한 '공간 속 울림' (2022) | \*세계초연, 신수정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소리로의 변역' (2017)

**열여덟 번째 이야기 | 퍼커션 듀오 Young의 <작은 타악>**

Bobby Lopez 'Conversation' for two tambourine (2010), Ivan Trevino 'Seesaw' (2020), Casey Cangelosi 'Theatric no.1' (2002), Casey Cangelosi 'Plato's cave' (2011), 김두영 두 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러시아행 야간열차' (2023) | \*세계초연, 전다빈 'Rhythmic suite' for flute and percussion (2023)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김지영 두 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Stick to Hands!' (2023) | \*세계초연

**열아홉 번째 이야기 | <북.채.통!>**

Mitchell Beck 'Trio' for percussion, 양지선 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퍼커션, 피아노 | 'p.p.' for percussion and prepared piano (2024) | \*세계초연, 양영광 타악기 3인을 위한 '나무(裸木)' (2024) | \*세계초연, Thierry de Mey 'Table Music' Musique de Table, Helmut Lachenmann 'Guero' for piano, 이병무 'Meta-Pattern' for 3 percussionists(2024) | \*세계초연 | 음악오늘 위촉곡

**스무 번째 이야기 10주년 기념음악회 | <장長단短短>**

김지영 3인 타악연주자를 위한 '굿-나잇 퍼레이드!' (2025) | \*세계초연, 신수정 3인 타악연주자를 위한 'A- aPA- aPAT' (2025) | \*세계초연, 양영광 3인 타악연주자를 위한 '피정(避靜)' (2025) | \*세계초연, 양지선 4인 타악연주자를 위한 'Woodpecker's drumming' (2025) | \*세계초연, 소리 퍼커션 작(作) '다스름' (2023), '육삼이' (2025) | \*세계초연

## 여러분을 위촉자로 모십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창작품을 위한 공동 위촉자로 모십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새로운 창작곡의 위촉과 연주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안내 : 신한은행 140-010-846240 음악오늘



##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

신수정 | 김두영 | 김은진 | 양지선 | 김지영 | 양영광 | 도하나



출판연도 | 2025년 12월 03일

이 메 일 | musikheute@daum.net

홈페이지 | [www.musikheute.com](http://www.musikheute.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umakonl](http://www.facebook.com/umakonl)

인 스타 | [www.instagram.com/musikheute](http://www.instagram.com/musikheute)

유 튜 브 | @음악오늘

편 집 자 | 김은진

디 자 인 | 양영광, 김두영


# 안기원 임무어



# 음악오늘

Project Ensemble 음악오늘

**Jörg Widmann**  
 <새것, 오래된 것, 빌려온 것>  
 2021.03.15(화) 19:30 원년호



오늘 이 사람, 음악학자 신인선

주제: 기록으로 보는 리케의 창작관  
 주제 2: 리케의 것을 말한 김연은 발표

2022년 11월 19일 오후 7시  
 11월 19일 토요일

음악오늘

LIEDERABEND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Chanson Concert)  
 - 운율이 음율이 되어 -

2021.12.12(토) 오후 5:00PM

운동선

20. Sun. 5:00PM  
 11월 20일 토요일

다섯 번째 이야기

2016년 6월 29일 (수) 오후 7시30분

정동 북카페 산 다미아노(San Damiano) 프란치스코 교목회관 1층

주제: 양트러프라이즘과 음악  
 Entrepreneurship and Music

장長. 단短.

2023. 12. 12. 19:30PM JCC 6회 공연

주제: 영재를 추상, 영상을 구성  
 "가야 세팅"의 "정동선"을 중심으로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

이수아 피아노 · 김효숙 기타

provision Live Music Perform

오늘 이 사람, 음악학자 페넬레

주제: 운동과 선율  
 주제 2: 선율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2022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 11번관 2층 대강당

음악오늘

LIEDERABEND  
 소프라노 이재은의 노래  
 - 운율이 음율이 되어 -

2015. 12. 12(토) PM 5:00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

2015. 12. 12(토) PM 5:00

음악오늘

양트러프라이즘과 음악  
 Entrepreneurship and Music

2016년 6월 29일 (수) 오후 7시30분

그리스-아르만

10.04 TUE 7:30PM  
 HEN HALL

# 음악오늘

오늘 이 사람, 음악학자 안소영

주제: 한스 아이슬러의 대중적 시선  
 Hans Eisler의 대중적 시선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11번관 2층 대강당

음악오늘

Ensemble Soave  
 소아베의 현악 사중주  
 (현악의 음악의 즐거움)

2016. 4. 19(화) 오후 7:30

음악오늘

Ensemble Soave  
 소아베의 현악 사중주  
 (현악의 음악의 즐거움)

2016. 4. 19(화) 오후 7:30

음악오늘

PIPE

2015년 12월 19일 오후 6시

음악오늘

STRADEUM Live

2023. 9. 16(토) 오후 3PM

지애리 이교진

2023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11번관 2층 대강당

음악이론가 박재성

주제: 음악, 이렇게 들을 것인가

2021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음악오늘

크리스마스 Duo 콘서트

2015년 12월 19일 오후 6시

# 음악오늘

음악오늘

PERCUSSION DUO YOUNG BUCHAL  
 피리산 듀오, 김희 작은 타악

2023. 9. 16(토) 오후 7:30

생황연주자 김효영

주제: 생황의 이해와 음악 어법  
 주제 2: 생황의 개성을 통한 연주법 변화과정의 현대음악에서의 접근

# 음악오늘

북.채.통!

2024. 6. 15. 토 17:00PM

이영우 피아노

2016.10.06(수) 7:30

한국 타악기 연주법

2023. 9. 16(토) 오후 7:30

음악오늘

음악오늘

2023. 9. 16(토) 오후 7:30

음악오늘 여덟번째 이야기

2023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11번관 2층 대강당

Ensemble Soave Concertino

왕상철 소아베의 소중주곡

2023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11번관 2층 대강당

음악오늘

2024. 6. 15. 토 17:00PM

이영우 피아노

2016.10.06(수) 7:30

소프라노 이재은의 크리스마스 무제컬의 가을우연

2023. 11. 19(토) 오후 7시

음악오늘

음악오늘

음악오늘 여덟번째 이야기

2023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11번관 2층 대강당

Ensemble Soave Concertino

왕상철 소아베의 소중주곡

2023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11번관 2층 대강당